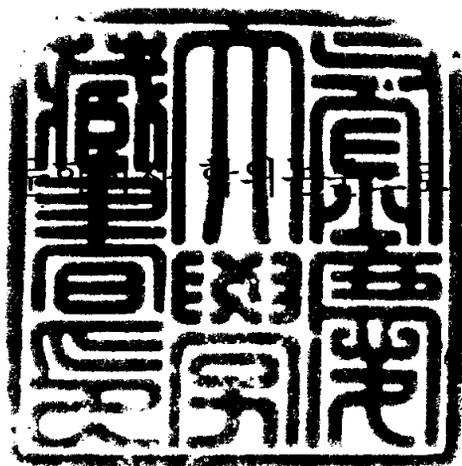


문학석사 학위논문

〈연행가〉에 나타난 홍순학의
사대부의식과 대외관 연구

지도교수 고 순 희

이 논문을



제출함

2003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전공

공 혜 정

공혜정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3년 8월 일

주 심 문학박사 김 쾌 덕
위 원 문학박사 박 영 준
위 원 문학박사 고 순 희



목 차

국문요약	iii
I. 서론	1
1. 문제의 제기	1
2. 선행연구의 검토	4
3. 연구방법	10
II. 홍순학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13
1. 남양 홍씨 가문의 연행 전통과 홍순학	13
2. 조선후기 대명·대청관의 변화	19
III. 사대부의식과 대외관	23
1. 사대부로서의 자의식과 내면 표출	23
1) 연행 관료로서의 자부심	25
2) 문사로서의 자부심	32
3) 지공과 기생애의 관심	34
4) 가족에 대한 그리움	37
2. 역사의식과 대외관	40
1) 역사의식	41
2) 대국애의 흠모와 승명사상	46
3) 반청사상	52
4) 부정적 대서양관	56

IV. <연행가>의 역사적 성격과 문학사적 의의 59

 1. <연행가>의 역사적 성격 59

 2. <연행가>의 문학사적 의의 62

V. 결론 68

참고문헌 71

영문초록(Abstract) 78

국 문 요약

우리나라는 외교적으로 ‘事大交隣’이라는 이중적 정책을 실시해 왔었다. 그 일환으로 명나라에는 朝天使를 파견하였다가 청나라에는 燕行使로 그 명칭을 바꾸어 파견하게 되었다. 이렇듯 나라의 명을 받고 사절로서 중국이나 일본을 다녀온 사람들은 나라에 復命하기 위하여 보고문을 작성하기도 하고, 또는 여행 중에 그들만의 소중한 경험이나 느낌 그리고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따로 문학작품으로 형상화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여행문학의 전통 속에서 쓰여진 한문기록을 여행록이라 한다. 여행록의 전통은 김창업의 『老稼齋燕行日記』, 홍대용의 『湛軒燕記』, 이덕무의 『入燕記』, 박지원의 『熱河日記』, 유득공의 『溲陽錄』과 『燕臺再遊錄』, 서호수의 『燕行記』, 김경선의 『燕轅直指』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가사의 형식을 빌려 쓴 것을 사행가사라 하는데, 특히 청나라의 연경을 다녀온 것을 燕行歌辭라고 한다. 現傳하는 여행가사로는 <燕行別曲>·<西征別曲>·<西行錄>·<燕行歌>·<北行歌>가 있다. 이러한 여행록이나 여행가사들은 이후에 여행하는 자들에게 훌륭한 지침서의 역할을 했다.

홍순학은 1866년에 進賀謝恩 兼 嘉禮冊封奏請使의 서장관으로 청나라를 다녀왔다. 멀고 먼 여행의 길을 오고 가면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가사의 양식을 이용하여 <여행가>라는 작품을 지었다.

본고는 <여행가>를 통하여 홍순학의 사대부의식과 대외관을 살펴보았다.

먼저 ‘사대부로서의 자의식과 내면 표출’이라는 제목 아래 홍순학의 사대부의식을 살펴보았다. 홍순학은 여행 관료로서 그리고 문사로서 그 자부심이 굉장했다. 게다가 여행자들에게 제공되는 지공과 기생에 대해 처음에는 어색해하지만 곧 관심을 기울이며 그 문화에 동화되었다. 즉 사대부 특권 계급으로서의 자부심이 그의 작품 前半部에 잘 드러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부모에 대한 깊은 호심과 아내에 대한 걱정과 같은 가족 사랑의 명제들은 가사를 읽는 독자들에게까지도 주자학적 이념에 부합하는 효의 정신을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는 작가의 역사의식뿐만 아니라 대외관을 살펴보았다. 홍순학은 여행의 길에서 유적지의 고사를 상기하면서 국가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의 대외관은 이러한 역사의식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19세기 후반은 비록 시대적으로는 근대화의 시기였지만, 홍순학은 아직까지 송명반청이라는 대외관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연행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 혼자만의 대외관이 아니라 일부 급진적 정치인을 제외한 일반 사대부들이나 민중들의 보편적인 의식이었다. 그리고 이에 연결하여 지극히 부정적인 서양관을 보이고 있다. 시대적 정세는 하루하루 변해가지만,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증화사상으로 인하여 청이나 서양이나 오랑캐라는 인식이 변하지 않고 이어져 오는 것이다.

<연행가>에 나타나고 있는 송명반청 의식은 작가 개인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의식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대명대청사상이 많이 변했어도 그것은 정치·사상계의 일부 인사들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정계 외곽에 자리잡고 있는 사대부들이나 일반 민중들에게는 여전히 반청의식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홍순학은 아직까지 만연해 있는 송명사상에 동조를 하고 이를 <연행가>를 통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연행가>는 연행록의 전통과 가사 쓰기의 전통이 만나는 점에서 남양 홍씨의 가문의 연행의 전통이 더해져 이루어진 작품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 내용적 측면을 보면 다른 연행록이나 연행가사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先연행기록들의 주요 모티브들을 빌려와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전 연행가사들의 상용어구적인 내용들은 거의 표절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용하여 쓰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서 조선후기 관습적 가사문학의 말기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연행가>는 사상적으로는 사대부 계급 그리고 일반 민중의 보편적인 의식을 포함하고, 내용적으로는 이전의 연행록에서 모티브를 가져오고 이전 연행가사들이 사용했던 상용어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조선후기 관습적 가사문학의 말기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I. 서론

1. 문제의 제기

전통적으로 중국은 우리나라에게 무척 가까운 나라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리상·정치상의 많은 이유로 인하여 수 천년 전부터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조선시대에만 하더라도 중국은 우리나라에게 외부세계를 대표하는 가장 커다란 존재였다. 그래서 외교의 문제에 있어서는 ‘스스로 우리 東方을 생각하면, 땅은 메마르고 백성은 가난하고 국경이 중국과 연결하였으므로,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事大하여 한 나라를 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¹⁾라는 말과 ‘저들(일본)이 비록 무도하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그 예를 다하여야 하오며, 영영 隣好를 끊는다면 그 만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번의 慶弔를 당하여 마땅히 禮信을 보내야 하겠습니까.’²⁾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事大交隣’³⁾이라는 이중적 정책을 실시해 왔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에는 통신사를 파견하였고, 명나라에는 조천사를 파견하였다가 중원의 주인이 청나라로 바뀌자 연행사로 그 명칭을 바꾸어 파견하게 되었다⁴⁾.

1) 皇帝北征是乃門庭之寇事出不得已耳如向者安南一舉帝之失也自念吾東方土瘠民貧境連上國誠宜盡心事大以保一區(태종 14년 6월 20일, 『태종공정대왕실록』 6,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 50).

2) 議遣使日本可否……彼雖不遜在我當盡其禮永絕隣好則已矣不然則當此慶弔之際宜致禮信(세종 25년 10월 22일, 『세종장헌대왕실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 64).

3) 우리나라는 中華라고 불려지며 세계의 중심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중국 대륙의 지배자에게는 事大의 禮를, 日本이나 琉球·女眞·安南 등의 국가에 대해서는 交隣이라는 이중적 외교정책을 실시하였다.

4) 같은 사대사행이건만 명나라에 가는 것을 朝天이라 하고 청나라에 가는 것을 燕行이라고 한 것은 사대의 대상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인식한 모화사상 때문이었다. 중국의 정통 왕조인 명의 경우는 전통적인 중국관이 지배적이었으나, 정복 왕조인 청대에는 이쩔 수 없이 주종적인 사대관계를 맺은 것이지, 자의적

연행사나 통신사의 일행과 같이 나라의 명을 받고 사절로서 중국이나 일본을 다녀온 사람들은 나라에 復命하기 위하여 보고문을 작성하기도 하고⁵⁾, 또는 여행 중에 그들만의 소중한 경험이나 느낌 그리고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따로 문학작품으로 형상화시키기도 했다⁶⁾. 이러한 문학작품 중에는 朝天錄·燕行錄⁷⁾과 같은 중국계 한문기록과 海槎錄·東槎錄⁸⁾과 같은 일본계 한문기록, 그리고 국문으로 된 가사와 일기 등이 있다.

이렇게 쓰여진 가사를 사행가사라고 하는데, 특히 청나라의 연경을 다녀온 것을 燕行歌辭라고 한다. 지금 현전하는 것으로는 1694년 柳命天⁹⁾의 <燕行別曲>·1695년 朴權의 <西征別曲>·1828년 金芝叟의 <西行錄>·그

인 교섭이 아니었다. 이에 한국에서의 대청관계의 사행록의 이름도 대명관계의 사행록이 朝天錄이라고 한 것과는 달리 燕行錄이라고 통칭되었다. 조천록이 天朝인 중국에 朝覲한 기록이란 뜻에 비해서, 연행록은 燕京인 북경에 사행한 기록이란 뜻이다.

김성철, 「연행소고」, 『여행과 체험의 문학-중국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5, p. 23.

황원구, 「연행록의 세계」, 『여행과 체험의 문학-중국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5, p. 54.

- 5) 예를 들면, <書狀官別單>이나 <首譯別單> 등을 들 수 있겠다. 『통문관지』에 보면 ‘서장관은 날마다 사건을 기록하였다가 회환한 다음에 承文院에 啓下한다’라고 되어 있다(『국역 통문관지』 1집 3권 사대 상,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p. 101).
- 6) 이 사행자 그룹에는 書狀官 외에도 당대를 대표하는 뛰어난 문사들이 항상 몇 명씩 從事官으로 학술외교를 담당하면서 동행했는데 그들은 거의가 문학적 私記錄들을 남겨 놓았다(임기중, 「연행가사의 연구」, 『한국문학연구』 10,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87, p. 46).
- 7) 명나라 기행인 朝天錄은 40여 종이, 청나라 기행인 燕行錄은 100여 종이 전하고 있다.
- 8) 일본 기행인 海槎錄과 東槎錄은 20여 종이 전하고 있다.
- 9) <연행별곡>의 작가 문제에 대해서는 작자미상이라는 이상보(「작자미상의 연행별곡」, 『한국고전시가연구』 속, 태학사, 1984, pp. 187~188)와 최강현(「연행별곡」, 『기행가사 자료선집』, 국학자료원, 1996)의 의견과 沈枋이라는 심재완(「연행가고」, 『일동장유가·연행가』 한국고전문학선집 10, 보성문화사, 1978, pp. 49~51)의 의견, 그리고 柳命天이라는 임기중(「연행가사연구」, 아세아문화사, 2001, pp. 29~36)의 의견이 있다. 그 중 필자는 임기중의 의견에 따라 <연행별곡>의 작가를 柳命天이라 썼다.

리고 1866년 洪淳學의 <燕行歌>와 柳寅睦의 <北行歌> 5편이 있다. 이를 표로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¹⁰⁾.

	燕行別曲	西征別曲	西行錄	燕行歌	北行歌
작가	柳命天	朴權	金芝叟	洪淳學	柳寅睦
신분	正使	書狀官	白衣寒士	書狀官	子弟軍官
지은연대	1694년 (숙종20년)	1695년 (숙종21년)	1828년 (순조28년)	1866년 (고종3년)	1866년 (고종3년)
연행출발	1693/11/3	1694/11/2	1828/4/13	1866/4/9	1866/4/9
연경도착	12/23	12/20 경	6/9	6/6	6/6
연경출발	翌年/2/4	翌年/2/5 경	8/13	7/11	7/11
귀환	3/13 이후	3월 경	10/3	8/23	8/23

이들 작품에서는 지어진 시기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전통적 사대부 지식인들의 의식이 공존해 내려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망해버린 명을 사모하는 崇明意識과 그와 동시에 청에 대항하고자 하는 反淸意識도 함께 내재하고 있다. 이는 청이 비록 지금의 중국 땅을 차지하여 천하를 다스리지만, 漢族과 조선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오랑캐라는 주자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생각에서 이들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다.

이러한 승명반청의 의식은 한 순간에 생겨난 것도 한 순간에 사라질 것도 결코 아니지만 시대가 변하면 그에 따라 생각이나 의식도 조금씩 변하기 마련이다. 다수의 승명반청적 모습 가운데서도 종종 청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거나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 등이 나타나 보이기도 한다. 19세기의 연행가사들에서는 종종 이러한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으며¹¹⁾, <연행가>에서는 ‘관료로서의 청의 제도와 문물에 대한 관심’으로써

10) 임기중, 앞의 책, 2001, pp. 27~28.

11) 1694년의 <연행별곡>을 제외한 4편의 연행가사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승명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승명의식의 연장선 속에서 1695년 <서정별곡>에서 청에 대한 긍정적 모습을 찾아보기에는 그 작품의 길이가 너무 짧다. 작가가 비록 의식의 변화를 가졌을 지도 모르지만 짧은 작품 내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1828년에 지어진 김지수의 <서행록>을 보면, 청에 대한 긍정적 시각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1866년 홍

나타나고 있다.

본고는 연행가사 중에서도 <연행가>를 통하여 19세기 사대부 지식인인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홍순학의 사대부의식과 대외관을 연구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홍순학의 의식적 측면들은 <서행록>이나 <북행가>의 작가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한 개인의 문학 작품은 그 개인만의 정신적 소산물은 결코 아니라 그 작가가 속해 있는 사회적·문화적·역사적 경험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홍순학 역시 이전 연행자들의 작품을 모방하여 <연행가>를 지음으로서 가사라는 문학 형식을 통하여 전통적 사대부들의 의식적 측면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2. 선행연구의 검토

연행가사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를 기행가사의 한 하위부류로서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품의 개별적인 연구도 대부분 일본계 사행가사인 <일동장유가>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연행가사만의 연구는 극히 미진하다. 게다가 기행가사마저도 “대부분의 연구는 신자료 발굴이거나 실증과 같은 기초적인 연구이고 본격적인 작품론이나 일반적인 특징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형편”¹²⁾이다.

조윤제¹³⁾가 가사의 하위 갈래를 11종으로 분류하면서 비로소 독립된 하나의 하위 갈래로서 자리하게 된 기행가사는 개별적인 작품 연구들이 이어져 오다가 최강현¹⁴⁾에 이르러 기행가사를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업적이 나

순학의 <연행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이 너무 주관에만 치우치지 않고 어느 정도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비록 같은 연행을 다녀왔지만 기녀와의 염정 쪽에 오히려 치우쳐 있는 유인목의 <북행가>와는 그 관심의 방향이 다르다.

12) 김용철, 「기행가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 가사문학 연구』, 태학사, 1996.

13) 조윤제, 『조선시가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8.

타났다. 그는 37편의 기행가사를 觀遊歌辭·流配歌辭·使行歌辭로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그 중 사행가사를 ‘임금님이나 나라의 명령으로 다른 나라에 어떤 특수한 임무를 띠고 심부름 가는 신하가 여행 중에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가사로 작품화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직접 사행의 역원으로 나라에서나 임금님께 명령받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들 사신행차를 동행하여 일행으로 따라 갔다가 지은 기행가사 작품도 사행가사로 보고자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범위까지 설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그동안 메말라 있던 기행가사의 연구뿐만 아니라 사행가사의 연구에도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최강현 이후에는 하위 장르로서 기행가사가 지닌 전반적인 갈래적 특성을 밝히는 연구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 연구자들로는 정기철¹⁵⁾·유정

14) 최강현, 「한국 기행문학 연구-주로 조선시대 기행가사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 논문, 1981.

최강현은 기행가사를 “한국 특유의 문학 양식인 가사 형식에 출발·노정·목적지·귀로의 4단계를 내포한 시간적·공간적 과정에서 여행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자기의 여행 경험을 담아 문학 작품화한 것”이라 말하고, 기행가사의 문학 양식과 그 특질들을 우선 살피고 있다. 그리고 37편의 기행가사를 觀遊歌辭·流配歌辭·使行歌辭로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이 중 사행가사를 다른 부분에서 조선시대의 외교를 중국행 사절과 일본행 사절의 두 유형으로 나누고, 중국계 가사의 慕華意識과 일본계 가사의 文化先進意識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견문과 지식의 확대·지리 개념의 확대·정서 생활의 향수라는 측면에서 기행가사의 문화사적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기행가사의 개념과 범주를 정의하고 기행가사를 가사 장르 내의 하위범주로 설정하여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15) 정기철, 「기행가사 연구」, 한남대 박사 논문, 1996.

정기철은 최강현의 유형분류를 기초로 漂流紀行歌辭를 첨가하여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3장에서는 기행가사에 나타난 서술 양상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각 유형별로 주제의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유가적 삶의 자세’의 관유기행가사·‘유배에서 느낀 삶의 갈등과 극복’의 유배기행가사·‘사행에서 본 崇明意識과 自國文化優越意識’의 사행기행가사 그리고 ‘표류의 절망과 여정’의 표류기행가사가 그것이다. 특히, 사행기행가사는 崇明蔑清意識의 중국사행과 自國文化優越意識의 일본사행 그리고 선진문명에 대한 선망과 갈등의 측면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 기행가사의 문학사적 의의를 다룬 5장에서 기행가사는 외연의 확대와 동시에 내용의 다양화를 가져왔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음수율의 파격을 동반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기술방식과 대화체의 사용 등으로 인해 초기의 서정적 가사에서 후기의 서사적 가사로의 이행에 큰 역할을 했다. 이렇듯 후기 기행가

선16) · 엮은열17) · 정한기18)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기행가사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선학들에 노고에 의해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 작가와 창작시기 · 이본을 실증적으로 밝힌 연구와 개별적 작품에 대한 문학적 의미를 밝힌 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행가사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의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행가사는 국내 사행가사와 국외 사행가사로 나눌 수 있다. 국내 사행가사의 연구가 비교적 출발 단계에 있는데 비해 외국 사행가사는 그 특이

사에서 나타난 4음보의 해체와 평민 중심의 세계관에 의한 다양한 내용은 국문학의 근대적 성격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16) 유정선, 「18·19세기 기행가사의 작품세계와 시대적 변모양상」, 이화여대 박사 논문, 1999.

유정선은 기행가사의 유형을 작가의 관직 유무와 기행의 지역이 국내인가 국외인가를 기준으로 宦遊歌辭·遊覽歌辭·使行歌辭로 나누고 각각의 유형이 18세기와 19세기에 따라 내용이 변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사행가사만으로 축약해서 본다면, 18세기에는 대외적 명분의식과 일상적 관심사의 수용의 측면에서 서술하고 있다면 19세기에 오면 대외명분의식이 약화되면서 신문물 및 풍물의 묘사가 확대되고 사행의식이 약화되면서 유흥공간의 묘사가 많아졌다고 작품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변모의 양상을 첫째 장편화·기록물 지향성과 흥미 지향성이라는 장르적 성격의 변화의 측면과 둘째 처사의식의 탈락과 탈규범적 성향이라는 작자층의 성격 변화와 그것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의 측면에서 논증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기행가사의 변모가 지니는 가사문학사적 위상까지 살펴보고 있다.

17) 엮은열, 「대상 인식과 내용 생성의 관계에 대한 표현교육론적 연구-기행가사를 중심으로」, 서울대 국어교육학 박사 논문, 1999.

엮은열은 기행가사의 대상표현에 초점을 두고 내용 생성으로 본 기행가사의 유형을 '작가의 대상에 대한 인식'에 따라 대상에 대한 卽物的 인식·선행 표현이나 이름이나 일상적 경험에 의한 觀念的 인식 그리고 主情的 인식으로 분류하고, 내용 생성의 일반적 기제로서 관찰과 앎 그리고 투사를 들고 있다.

18) 정한기, 「기행가사의 진술방식 연구」, 서울대 박사 논문, 2000.

정한기는 기행가사 진술방식의 특징과 분석 기준을 마련하여, 화자의 대상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독백형·독백보고형·독백변모형·독백보고변모형으로 나누어 그 각각의 진술방식이 가지는 의미들을 밝혀내고 있다. 더불어 위의 4가지 유형의 기행가사의 역사적 전개와 문화사적 의미까지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독백보고변모형이 양반사대부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나 평서층의 의식을 지향하는 이른바 신분동요의 작가들에 의해 쓰여지며, 논쟁적 대화로 작가의 중세와 탈중세라는 이중의식을 드러낸다고 하여 시대의 변모에 따른 작가 의식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 성격으로 인해 비교적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일본계 사행가사의 경우는 조선통신사의 연구와 더불어 현재까지도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장덕순의 발표를 시작으로 최강현·김국소·이성후·소재영·장순순·박희병·이희승·한태문·이혜순 등이 <일동장유가>와 <대일본유람가>의 작품 소개와 간단한 노정 및 작품 속의 사상을 논의했다.

반면, 중국계 사행가사(이하 연행가사라 칭함)의 연구는 일본계 사행가사에 비하면 극도로 미진한 편이다. 그나마 <연행가>가 <일동장유가>와 더불어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으며, 요즘에는 <서행록>이나 <북행가>도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먼저 <연행별곡>과 <서정별곡>의 연구자로는 이상보¹⁹⁾를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이는 작품의 길이나 내용 등 많은 면에서 이후 세 작품에 밀리고 있다. <서행록>의 연구자로는 단연 임기중²⁰⁾이 독보적이다. 그는 그동안 선학들에 의해 <연행가>가 중국 사행가사에서는 최고봉이라고 여겼던 관행을 뒤엎고, <서행록>이 <연행가>보다 시대면에서 앞설 뿐만 아니라 그 내용면에서도 훨씬 뛰어난 수작임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증명해 보이고 있으며, <서행록>이 <연행가>의 창작과 많은 이본들의 형성에 전범이 되었을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북행가>에는 홍재휴·권영철·이동영의 3인방이 두각을 나타냈고 뒤늦게 정병국이 합세하였다. 홍재휴²¹⁾는 <북행가>의 전사본을 찾아 처음으로

19) 이상보, 「장풍에 놀란 물결-원제 서정별곡」, 『문학사상』 33, 문학사상사, 1975.

_____, 「연행별곡-고전의 발견」, 『시문학』 52, 시문학사, 1975.

_____, 앞의 논문, 1984.

20) 임기중, 「사행가사 서행록고」, 『문예중앙』 가을호, 중앙일보사, 1978.

_____, 「서행록 해설 기행문학사의 신기원」, 『문예중앙』 가을호, 중앙일보사, 1978.

_____, 앞의 논문, 1987.

_____, 「무자서행록과 병인연행가」, 『한국가사문학연구』, 태학사, 1996.

_____, 「연행가사와 연행록」, 『가사연구』 국문학연구총서 4, 국어국문학회편, 태학사, 1998.

21) 홍재휴, 「북행가 고」, 『국어교육연구』 2, 효성여대 국어연구회, 1973.

_____, 『북행가 연구』, 효성여대 출판사, 1991.

작자를 밝히고 학계에 알렸지만 당시 원문을 전재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후 『북행가 연구』에서는 작품 전반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고찰하고 그 전문을 뒤에 수록하였다. 권영철²²⁾은 <북행가>가 작가의 성격·사명·인생관·사회관에 따라 그 서술 태도나 내용이 기존의 사행가사들과는 다르게 표출되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연행가>가 『史記』에 비할 수 있다면 <북행가>는 『遺事』에 비할 수 있다며, 그 문학 예술적면에서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역시 원문을 전재하지는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이동영²³⁾은 1973년에 홍재휴와 권영철이 <북행가>를 소개하면서 원문을 전재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면서 봉화군 소천 정재동씨의 부인에게서 전사해 온 것을 現綴하여 자료로서 가장 먼저 <북행가>의 전문을 공개하고 있다. 정병국²⁴⁾은 이제까지의 <북행가> 연구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먼저 형식상의 특징을 설명하고 견문과 염정의 조화라는 내용상의 특징을 밝혔으며, 멸청과 모화의 공존·수구 보수성의 유지라는 작가의식을 주장하고 있다.

<연행가>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온 반면에 학위논문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한강부²⁵⁾·심재완²⁶⁾·박노춘²⁷⁾은 비교적 이른 시기의 연구자들로서, 연구 내용의 대부분은 <연행가>의 원문 해석과 일차적인 자료의 분석에 치우치고 있다. 최강현²⁸⁾은 <연행가>와 <일동장유가>의 내용을 표를 통해 비교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보다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주영²⁹⁾은 <연행가>의

22) 권영철, 「북행가에 대하여」, 『국문학연구』 5, 효성여대, 1976.

23) 이동영, 「유인목의 북행가」, 『안동문화』 4, 안동문화 연구회, 1974.

24) 정병국, 「차산 유인목의 북행가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 논문, 1999.

25) 한강부, 「연행가편고」, 『어문논집』 7, 고려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63.

26) 심재완, 「연행가고」, 앞의 책, 1978.

27) 박노춘, 「가사 연행가(병인연행록)」, 『문리학총』 5, 경희대 문리과대학, 1969.

28) 최강현, 「사행가사소고-연행가와 일동장유가를 중심으로」, 『성봉김성배박사 회갑기념논문집』, 형설출판사, 1977.

———, 「사행가사를 비교하여 살핌」, 『여행과 체험의 문학-중국편』, 민족문화 문고 간행회, 1985.

29) 이주영, 「연행가고」, 『한국 고전시가 작품론』 2, 집문당, 1992.

작가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친명반청으로 일관되고, 서양인에 대해서는 더욱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서술태도 면에서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고 세심한 관찰력을 보이며 부조리에 대한 비판정신을 들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계를 지었다. 그래서 보수적 의식의 소유자가 새로운 경험을 충실하게 가사라고 하는 장르 속에 담아내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인정되지만,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면서 새로운 대상을 담아내는데 있어서 그 대상의 특성보다는 작가의 의식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고 끝맺고 있다. 윤광봉³⁰⁾은 제목 그대로 <연행가> 전반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演戲라는 한가지 항목에 논의가 집중되어 있다. 소재영³¹⁾은 서유문의 <무오연행록>과 <연행가>를 기행문학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비교·고찰하면서, 홍순학의 관찰과 비교묘사의 빼어난 서장관으로 발탁된 그의 관찰력과 문장력을 기리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칭찬하고 있다. 그리고 신분상 대열을 사사로이 이탈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자연 사행의 기록들도 한정되고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선행 연행자들의 기록을 빌리거나 동행자의 개별적 탐문록을 참고하는 한계성을 가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병철³²⁾의 연구는 비록 그 내용은 이제껏 연구되어진 바 있는 결과들을 정리하는 수준에 그친 듯하나 그동안 침체된 듯 보여졌던 <연행가> 단일작품을 소재로 한 학위는 물론, 앞으로 <연행가>의 연구가 더 많이 출현하게 될 수 있는 전조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위의 선행연구의 검토에서 보듯이 기행가사 전반에 걸친 연구는 비교적 꾸준하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행가사의 전반이나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는 그 수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 여전히 미진한 모습을 보

30) 윤광봉, 「사행문학에 나타난 연희양상-병인연행가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논문집』 23, 대전대, 1997.

31) 소재영, 「무오연행록과 연행가의 비교고찰」, 『고전산문의 계보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1.

32) 이병철, 「병인연행가 연구」, 경희대 석사 논문, 2001.

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이 방면의 연구도 조선통신사와 함께 <일동장유가>에 한정되어 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중국 사행가사 중에서는 특히 <연행가>가 다른 작품들에 비해 비교적 먼저 학계에 알려진 까닭에 이에 대한 연구도 일찍 이루어졌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초창기의 연구들은 대부분 작품의 해설에 중점을 둔 것들이고 그 이후로는 연구가 지속적이지 못한 편에 속한다. 비록 <일동장유가>와 더불어 연행가사의 수작이라 알려져 왔지만 이에 대한 변변한 학위 논문 하나 없는 것이 <연행가>를 연구하는 현재의 모습인 것이다. 그나마 여러 학술지를 통하여 명맥을 유지만 할 뿐 최근에는 이러한 연구도 줄어들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다행히 임기중과 이주영 등이 <연행가>의 한계점이나 부족한 면을 지적하여 놓음으로써 후학들에게 <연행가> 연구의 틈새를 열어 주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병철을 위시로 하여 더욱 발전된 논문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

3. 연구의 방법

현재 전하고 있는 5편의 연행가사 중 본고는 <연행가>를 바탕으로 하여, 19세기 후반의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홍순학의 사대부의식과 대외관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그의 이러한 측면들을 드러내기 위해 필자는 <연행별곡>·<서정별곡>·<서행록> 그리고 <북행가>의 원문을 인용하여 비교·대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홍순학의 사대부의식과 대외관은 그 위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II장에서는 <연행가>의 작가인 홍순학과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1단락에서는 홍순학과 남양 홍씨 가문의 연행 전통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19세기 후반 조선의 도시적 환경이 작가에게 미친 영향력 또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연행가>가 창작될 수 있었던 배경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2단락에서는 16세기 이후부터 대명·대청

관의 변화의 모습을 살필 것이다.

Ⅲ장에서는 작품의 인용을 통해 작가의 사대부의식과 대외관을 살펴 볼 것이다. 이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 진다. 1단락에서는 사대부로서의 자의식과 내면 표출이라는 제목 아래, 홍순학의 연행 관료로서의 자부심, 문사로서의 자부심, 지공과 기생에의 관심,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의 부분으로 나누어 살필 것이다. 2단락은 대외관이라는 제목 아래, 작가의 역사의식과 대명·대청관 그리고 대서양관을 차례로 살필 것이다. 작가의 역사의식은 대외관과 연장선 상에서 이어지고 있다.

Ⅳ장에서는 <연행가>의 역사적 성격과 그 문학사적 의의를 밝혀보고자 한다. 먼저 19세기 후반 대명대청관의 변화 속에서 작가의 대명·대청관 및 대서양관을 통해 <연행가>가 가지는 역사적 성격을 살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연행가사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연행가>의 문학사적 의의까지 짚어보고자 한다.

V장은 결론으로서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정리하기로 한다.

본고는 <연행가>의 많은 이본들³³⁾ 중에 심재완이 校註한 <연행가>³⁴⁾를

33) <연행가>는 그 이본이 많기로 익히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본고는 이본들의 소개나 그들간의 상호비교에 연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이본들을 여기서는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이본들의 정리는 심재완의 『일동장유가·연행가』(앞의 책, 1978, p. 36)와 서원섭의 『한국가사의 문학적 연구』(형설출판사, 1995, p. 180)와 임기중의 『연행가사연구』(앞의 책, 2001, p. 25) 등을 참고했다.

① 陶南本 : 고종 28년(1891)에 轉寫한 것으로 총 98면 3782구인 도남문고(영남대) 소장본의 필사본.

② 藏書閣本 : A본은 겉표제에 ‘燕行錄單’이라 되어 있고 안표제에는 ‘燕行歌’라 되어 있음. 총 62면 3328구이며 廓匡내의 廣長은 11.6×16.5cm. B본은 표지에 ‘燕行錄 全’이라 되어 있음. 총 39면 3394구.

③ 이재수본 : 고종 광무 10년(1906)에 필사된 것으로, 총 47면에 3376구.

④ 高大樂府本 : 이용기의 필사본인 「악부」에 수록된 총 23장의 연행가.

⑤ 김약술본 : 고종 32년(1895)에 전사한 것으로 겉표제에는 ‘燕行錄’ 안표제에는 ‘연행곡’라 되어있으며 대체로 도남본과 비슷한 고려대학교 소장본.

⑥ 아세아문제 연구소본 : 고종 광무 8년(1904)에 전사된 것으로 겉표제에는 ‘연행록단’ 안표제에는 ‘연행록’이라 되어 있으며, 역시 도남본과 큰 차이가 없는 고려대학교 소장본.

⑦ 조운제본 : 총 98장으로 되어 있으며 ‘년행가’라고 제첨된 영남대 도서관 소

연구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그리고 다른 연행가사를 비교하여 인용할 때는 이상보의 <연행별곡>³⁵⁾과 <서정별곡>³⁶⁾, 임기중의 <서행록>³⁷⁾, 그리고 홍재휴의 <북행가>³⁸⁾를 그 대상으로 하겠다.

장본.

그 외에도 양재연본·백순재본·금서룡본·국회도서관본·국립도서관본·경북대학교 도서관본 등이 있다.

34) 심재완 교주, 「연행가」, 앞의 책, 1978, pp. 442~569.

이는 陶南本을 底本으로 하고 對校本으로 藏書閣의 A·B 兩本과 고대 악부분·이재수본을 교합하여 現綴·加註한 것으로, 짝수 페이지에는 底本과 對校本을 교합한 원문을 게재하였고 홀수 페이지에는 이를 現綴·加註하여 쉽게 풀어쓰고 있다. 작품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짝수 페이지의 원문만을 쓰기로 하고 인용문의 옆에 괄호를 두어 그 속에 페이지만을 적기로 한다.

35) 이상보, 앞의 논문, 1984.

36) 이상보, 앞의 논문, 1975.

37) 임기중, 앞의 책, 2001.

38) 홍재휴, 앞의 책, 1991.

그리고 각각의 원문을 인용할 때에는 옆에 괄호를 두어 작품 제목과 페이지만을 적어두기로 한다.

II. 홍순학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이 장에서는 <연행가>의 작가인 홍순학과 가문의 연행 전통은 물론 19세기 후반의 조선의 대명·대청관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이는 작가의 가문적 전통과 19세기 후반이라는 시기적 상황이 어떠한 모습으로 <연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한 예비 단계이다.

역사적·정치적 사실들은 실록이나 역사 서적을 통하여 많은 사실들을 알아낼 수 있다. 하지만 홍순학 개인에 관한 것들은 그의 저서나 문집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러한 것들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남아있는 자료가 없다고 해서 그에 대해 전연 알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작가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여러 자료들-특히 가문을 배경으로 한 여러 자료들-을 동원해서 작가에 대해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이 그만의 특수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보편성까지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시대에 어느 한 개인이 특출나게 잘나서 그만의 개성적인 학풍이나 사상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반드시 그가 속한 가문이나 당파 그리고 그 시대의 일반적인 견해를 견지하고 있을 거라고 추측해 보는 것도 일리는 있다는 것이다.

‘문학작품은 그 사회를 반영한다’고 한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홍순학이 속해 있던 사회가 작가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연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 남양 홍씨 가문의 연행 전통과 홍순학

남양 홍씨는 고려와 조선에 걸쳐 약 1천여 년의 음성을 누리며 우리나라 10대 문벌의 하나로도 꼽히던 名門³⁹⁾이다. 남양 홍씨는 ‘唐洪’과 ‘土洪’이라

39) 조선 朝에 남양 홍씨는 모두 329명(당홍 206명, 토홍 123명)의 文科 급제자를

는 전혀 다른 두 계보가 있는데, 당홍은 고구려 시절 당나라에서 귀화해 온 홍학사의 후예이고 토홍은 고려 고종 朝의 홍선행의 자손이라고 한다.

그 중 당홍계를 보면, 조선 중기에는 仁祖反正의 공신으로 영의정 대제학에 오른 홍서봉과 그의 아버지인 천민, 할아버지 춘경은 ‘三代 湖堂’의 명예를 누렸다. 또 천민의 동생인 성민의 후예는 그로부터 6代 7명 大科의 영예를 쌓았는데, 춘경의 아버지 계정부터 따지면 9代 대과의 5백 년 유일 무이한 기록을 세웠다. 더욱이 그 중에는 영의정이 두 명이요 우의정이 한 명으로 唐洪系 영화의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당홍은 영조 代에 한 차례 큰 재앙을 입게 되었다. 이조판서를 지낸 홍계희의 아들 5형제가 大科에 올라 위세를 떨쳤는데 그 중 지해·술해·찬해와 지해의 아들 상간 등이 老論 辟派에 가담했다가 정조 1년 ‘홍인한 역모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사형을 당하게 된 것이다.

다시 韓末에 대원군의 심복이자 수구강경파의 거두였던 홍순목이 영의정에 오르는 등 조선조 중반 이후 당홍의 영화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영식이 김옥균 등과 함께 일으킨 갑신정변이 실패하여 대역죄인으로 처형되자 자결하는 비운을 맞았다. 영식의 형 만식은 을사보호조약 체결에 올분을 못 이겨 음독 자결했고, 홍종우는 개화파의 영도자 김옥균을 암살하는 등 당홍은 개화의 시기 속에서 격동하는 가문이었다. 1880년(고종17년) 일본서 돌아온 修信使 김홍집이 『조선책략』을 왕에게 올려 개화의 논의가 분분했을 당시, 關東儒林의 대표로 斥倭를 상소하고 미지근한 태도의 왕까지도 공격하는 등 결사적으로 개화를 반대하다가 참형을 당한 홍재학은 당홍의 보수성을 드러낸 인물이라 할 수 있다⁴⁰⁾.

홍순학은 이러한 남양 홍씨 唐洪系の 33대 손⁴¹⁾으로 1842년(현종8년) 薨

났다고 한다. 884명의 전주 이씨, 359명의 안동 권씨, 336명의 파평 윤씨에 이어 네 번째이지만 그 인구 순위를 감안하면 놀라운 숫자라고 할 수 있다.

40) 한국씨족사연구회, 『국역관 한국족보대전』 丁, 도서출판 청화, 1989.

<http://home.opentown.net/~chingyu/main.htm>.

41) 『국역관 한국족보대전』에 있는 남양 홍씨의 당홍계의 <大同行列表>를 보면 다음과 같다.

鍾의 두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다. 형 淳鼎은 夏鍾에게 입양되고 순학은 爽鍾에게 입양되었으며 鍾秀의 아들 淳恒이 양자로 들어와 기종의 대를 이었다. 자는 德五이고 경기도 積城에서 자라났다⁴²⁾. 그리고 『國朝榜目』에 의하면 1857년(철종8년) 4월 9일에 시행된 親臨春塘臺 大王大妃殿寶齡將躋七旬 王大妃寶齡洽滿五旬 合二慶慶科 庭試文科에서 甲科 1인에 유학 유만원, 乙科 2인에 생원 이상우·김병육과 함께 16세의 어린 나이에 丙科 20인 중의 한 명으로 급제했다⁴³⁾. 이후 正言·修撰·大司憲·大司諫·禮曹參議·監理仁川港通商事務·仁川府使·協辦交涉通商事務 등 여러 벼슬을 지냈다⁴⁴⁾. 그리고 1892년(고종29년) 5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연행가>는 1866년(고종3년)에 유후조를 정사로 하고, 서당보를 부사로 하는 進賀謝恩兼 嘉禮冊封奏請使 중에서 書狀官의 자격으로 청나라를 다녀와서 지은 것이다. 그 외 홍순학의 문집이나 글들은 남겨진 바가 없어서 더 이상 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남양 홍씨가 역대로 明·淸·日本·美國 등 외교에 관련된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었다는 점이다. 그 중에

세손	31세손	32세손	33세손	34세손
항렬자	在○	○鍾	淳○	○杓·○植

여기서 홍순학의 친부 夔鍾과 양부 爽鍾이 '○鍾', 淳學이 '淳○', 아들 運杓가 '○杓'의 항렬자를 사용하고 있음으로 보아 확인할 수 있다.

42) 홍을표, 『남양문헌록』, 남양홍씨 대종중중앙총회, 1975, p. 37.

한국인명대사전 편찬실, 『한국인명대사전』, 신구문화사, 1976, p. 1043.

한국씨족사연구회, 앞의 책, 1989, p. 171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인물대사전』 1~2, 중앙M&B, 1999.

남양홍씨 문정공파 중앙총회, 『남양홍씨 문정공파보』 1~12, 남양홍씨문정공파 중앙총회, 2001, p. 432.

43) 또한 홍순학이 壬寅年 출생에, 父는 爽鍾·生父는 夔鍾·祖父는 在定·曾祖父는 濟燮 그리고 外祖父는 兪星煥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국조방목』, 국회도서관, 1971, p. 447).

이러한 사실은 『철종실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春塘臺에 나아가 庭試를 행하여, 文科에서 유만원 등 10인을 뽑고 武科에서 김몽구 등 6백 91인을 뽑았다.”(『철종실록』, 철종 8년 4월 9일).

44) 홍순학이 과거에 급제한 철종 8년부터 그가 죽은 때인 고종 29년까지의 실록을 참고했다.

서도 특히 청나라에 삼사의 자격으로 연행을 했었던 분들만 연행 연대순으로 따로 정리해 본다면 아래와 같다⁴⁵⁾.

	출발일	이름	신분	목적
1	인조20년(1642.05)	洪處亮	서장관	진하·진주
2	인조22년(1644.02)	洪茂績	정사	사은
3	인조23년(1645.08)	洪振道	부사	사은·주청
4	효종1년(1650.11)	洪命夏	부사	삼절세공
5	현종1년(1660.01)	洪得箕	정사	사은
6	현종2년(1661.03)	洪 瑑	부사	진하·사은
7	현종3년(1662.10)	洪處大	부사	동지
8	현종5년(1664.04)	洪命夏	정사	사은·진주
9	현종6년(1665.10)	洪處厚	부사	동지
10	현종7년(1666.10)	洪處大	부사	동지
11	숙종21년(1695.11)	洪受疇	부사	삼절세공
12	영조36년(1760.11)	洪啓禧	정사	삼절세공
13	영조39년(1763.02)	洪趾海	서장관	사은·진주·주청
14	영조41년(1765.11)	洪 櫓	서장관	삼절세공·사은
15	영조45년(1769.10)	洪 梓	부사	삼절세공
16	순조13년(1813.02)	洪起燮	서장관	사은
17	순조28년(1828.10)	洪起燮	정사	사은·동지
18	고종3년(1866.03)	洪淳學	서장관	진하·사은·주청
19	고종18년(1881.10)	洪鍾軒	정사	동지

위의 표만 보더라도 남양 홍씨 가문의 연행전통을 확인해 볼 수 있다⁴⁶⁾. 이렇게 연행경험이 풍부한 가문의 전통 하에서 홍순학은 여느 사대부들과 마찬가지로 연행에의 꿈을 키워 왔다. 이는 다른 연행가사의 작가들과 마

45) 한국씨족사연구회, 앞의 책, 1989.

http://www.koreandb.net/Bon/HTML/bon_h12_1.htm.

<(부록) 조선후기 연행사행원과 연행록 목록>(김문식, 「18세기 후반 서울 학인의 청학의식과 청 문물 도입론」, 『규장각』 17, 1994, pp. 41~55).

『조선왕조실록』 인조~고종.

46) 남양 홍씨의 이러한 연행의 전통은 그 이전에는 명나라로의 연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다.

찬가지로 작품의 서두에서 말해지고 있다.

어와 텃지간의 남즈되기 쉽지안타 / 평성의 이니몸이 둥원보기 원호더니47)

위에서 알 수 있는 연행에의 바람은 홍순학 뿐만 아니라 조선의 사대부라면 누구나가 바라는 것이다. 아래를 보면 40여 세의 늦은 나이에 백의한사로 종군했던 김지수의 <서행록>에서도, 정사 유후조의 자제군관으로 함께 연행했던 유인목의 <북행가>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48).

나역시 문소로서 원유를 생각더니 / 부귀미행 천니로 획의로 종스한다49)

가너울스 우리인성 편소동방 심장호녀 / 편소흔 고려국도 다보기 어렵거든 / 하물며 더 국이야 그엇지 일을손즈 / 너본더 서심이라 연행을 요랑호라50)

이로 미루어 보아 연행은 그 신분이 백의한사든 자제군관이든 상관없이 사대부라면 누구나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었던 理想의 길이었는 것이다. 이는 사대부들의 머릿속에 아직까지 중국이 조선에 비해 대국이라는 생각이 짙게 깔려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51). 일본으로 사행가는 사람들에게

47) <연행가> p. 442.

48) 그러나 유명친의 <연행별곡>이나 박권의 <서정별곡>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이는 두 작품의 제작 시기가 17세기 후반으로, 19세기 초반에서 후반 사이에 지어진 <서행록>이나 <연행가>·<북행가>보다는 이른 관계로 아직 가사의 장편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짧은 작품 속에 장황한 내용의 것들을 모두 다루지 않은 것이라 여겨진다.

49) <서행록> p. 140.

50) <북행가> p. 65.

51) 여행 가운데서도 국내가 아니고 외국이라 할 때 더욱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것도 하찮은 하인으로 수행한 것도 아니고 당당한 지위로 이른바 事大交隣이란 국사를 수행하는 입장이거나, 비록 군관이란 명목으로 수행한다 할지라도 지식인으로서의 외국여행의 의미는 컸으리라 생각한다. 말하자면 이런 기회는 사대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행운아에게만 오는 것이다. 외국의 여행 중에도 우리보다 문명이 더 발달되었다고 하는 중국에의 여행은

게서는 이러한 바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이를 더욱 확증해 주고 있다. 오히려 그들은 바닷길의 위험성이나 일본이 조선에 비해 오랑캐라는 생각에, 일본으로 사행가는 것을 염려하고 혹은 가기 싫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는 것이다⁵²⁾.

그리고 연행의 예비 단계로 가문의 선조나 先연행자들이 남긴 기행 작품을 열심히 읽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⁵³⁾. 그가 마침내 서장관으로 연행의 길에 올랐을 때 이러한 예비 지식들은 다른 연행자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연행에 있어 지침⁵⁴⁾이 되었을 것이며, 결국 이러한 것들이 그의 작품 <연행가>의 내용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후기 문헌에 자주 쓰이던 용어로서 이 시기에 나타난 부류들을 지칭하는 京華世族⁵⁵⁾이란 용어가 있다. 이는 서울을 주된 생활공간으로

더욱 사랑스러운 것이었으리라 생각된다(정재호, 『연행가류에 나타난 중국』, 『여행과 체험의 문학-중국편』, 민족문화문고 간행회, 1985, pp. 274~275).

52) 당시 선비라면 누구나 중국 여행을 한 번쯤 꿈꾸었을 법한 일이다. 조선시대에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길은 燕行과 海行의 두 길 뿐이었는데, 아무래도 바다를 건너는 일본 여행보다는 중국 여행을 용이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또, 島夷視하던 일본에 가기는 꺼려했지만, 入燕은 自願하고 나선 자가 많았던 것이다(조수익, 『노가재의 중국 체험-그의 연행일기를 중심으로』, 『여행과 체험의 문학-중국편』, 민족문화문고 간행회, 1985, p. 74).

53) 연행을 떠나려는 자가 연행 이전에 먼저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연행록이나 연행가사를 읽었으리라는 주장은 이미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사실이다. 김명호, 『연행록의 전통과 열하일기』, 『한국 한문학연구』, 한국문화학회, 1988, p. 41.

54) 가장 많이 읽혔던 연행록 작품으로는 김창협 의 『老稼齋燕行日記』(1712)와 홍대용 의 『湛軒燕記』(1765), 박지원의 『熱河日記』(1780), 그리고 서유문의 『戊午燕行錄』(1798) 등이 있다. 이 작품들은 後연행자들에게 있어 연행 지침서로의 역할을 했다.

55) 경화세족이라 함은 서울을 주된 생활공간으로 하는, 서울에 世居하는 양반가문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부대 조건이 필요하다. 즉, 서울에서의 세거뿐만이 아니라, 관직(특히 淸要職)의 획득 가능성이 다른 양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또 그 가능성이 사회적 통념으로 공인된 가문을 말한다. 경화세족 중에서 정치권력의 핵심을 장악한 형태를 閥閥로 본다. 특정 개인이 경화세족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그 개인의 官歷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소속 가문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경화세족의 형성배경은 복잡하겠지만, 핵심은 역시 양반들의 권력투쟁-당쟁으로 생각된다. 당쟁은 당파의 차원에서는 북인·남인·소론을 권력에서 제거 내지 약화시키고 급기야 19세기에 접어들면 노론 일당 독

하고, 서울에 世居하는 양반가문을 의미한다. 홍순학은 養父인 爽鍾에게 입양된 이후 출판 경기도 積城 땅에서 자라났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홍순학 역시 서울과 경기 주변의 도시문화 속에서 성장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도시의 문화 속에서 생활한 사람은 시골에서 생활하는 사람에 비해 급진적이고 국제적인 감각에 있어서도 뒤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의식에 있어 개방적이고 근대적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발달한 도시문화 속에서 작가는 그 시대의 정치·경제·외교의 흐름을 몸으로 느끼며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 하나하나를 작가가 연행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들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세계를 바라보는 의식의 틀이 되어준다. 先연행자들의 지식과 작가의 사회적 배경의 조합으로 탄생된 <연행가>를 통하여 홍순학의 사대부 의식적 이모저모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2. 조선후기 대명·대청관의 변화

조선 대대로 주자학을 크게 숭상해 왔던 사대부 지식인들의 의식 속에 明이라는 존재는 엄청나게 큰 것이었다⁵⁶⁾. 하지만, 이전까지의 대명관계가 명분론적인 것이었다면 조선 중기부터의 대명관계는 시대에 따라 바뀌어가기 시작했다⁵⁷⁾. 16세기 조선의 지식인들은 특히 임진왜란시 명이 원병을

재의 형태로 진행되었지만, 지역적으로는 서울을 제외한 여타 지방(호남·영남·기호)의 양반층을 차례로 권력에서 배제하는 것이었다. 경화세족은 이렇게 하여 생성된 것이다(강명관, 『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 공간』, 소명출판, 1999, p. 254와 p. 279).

56) 유교 문명권에서 禮란 인간과 금수를 구별시켜주는 핵심적인 기준이자, 또한 중화와 이적을 분별해주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중국이 중국이 되는 까닭은 예의가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 아래, 중국이야말로 천하 문명의 정화·정수가 모여 있는 곳으로 여겼다. 반면에, 이적은 예의를 모르는 존재로 보았으며, 따라서 이적에 대해서는 예의로써 대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권선홍, 「조선시대 중국과의 사대자소관계에 대한 인식」, 『국제문제논총』 11, 부산외대 국제관계연구소, 1999, p. 125).

파견하여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조선을 도와줌으로써 조선의 대명관계는 더 이상 명분만이 아닌 실질적 互惠關係⁵⁸⁾임이 확인되었고, 이로써 조선 지식인의 존명적 태도는 더욱 확고한 정당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병자호란에서 조선은 淸의 무력에 무참히 굴복 당함으로써 조선의 문화적 자존심이 큰 상처를 입게 되었고 기존의 중화주의적 국제질서도 커다란 동요를 맞이하게 되었다. 조선 지식인의 머리 속에 확고히 자리잡고 있었던 명분론적 대중국관계는 망해버린 명을 추념하는 관념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중화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조선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는 중화의 유일한 계승자로서 조선문화 자존의식으로 귀결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주도적 정치집단이었던 노론계통 지식인의 대명의리론은 조선문화 자존의식·반청적 북벌대의론과 굳게 결합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대외명분론은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도 공인되었다⁵⁹⁾.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서도 북벌의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청의 중원지배를 받아들이는 현실론을 주장했던 소론계 일부 지식인들은 송시열류의 전통적 대외명분론을 심각하게 회의하고 있었다.

18세기로 와서 조구명이나 이익의 북벌대의론에 대한 회의는 문화자존의식으로서의 조선 중화의식이 강화되는 추세에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확고했던 대명의리론이 이제는 퇴색하고 조선중화의식이 강

57) 대명대청론에 관한 의견은 대부분 다음 논문들에서 참고했다.

유봉학, 「북학사상의 형성과 그 성격-담헌 홍대용과 연암 박지원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8, 서울대 국사학과, 1882.

_____, 「18·9세기 노론학계와 山林」, 『한신논문집』 3, 한신대, 1986.

_____, 「18·9세기 대명 의리론과 대청의식의 추이」, 『한신논문집』 5, 한신대, 1988.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1998.

권선홍, 앞의 논문, 1999.

58) 중국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내용으로 상이 중국에 보낸 서간은 다음과 같다.

朝鮮國王臣姓諱伏以保家邦於顛危既荷再造之至澤哀民庶之墊溺復蒙並育之洪恩深切兢惶祇增銘鏤伏念臣賢乎聲教守箕疇祖授孫傳徒知忠順而事大內寧外患莫恬恬愜之致成宜……皇帝陛下功參元化德乾坤機撫四海而同仁生死肉骨體(선조 32년 12월 1일, 『조선왕조실록』 24, 국사편찬위원회, 1979, pp. 12~13).

59) 이러한 모습은 국가적 차원에서 설치된 대보단과 만동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되는 추세 속의 극단적 양상들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명의리론의 전반적인 추세를 주도했던 것은 역시 노론계의 생각이었다. 이 단계의 흐름에서는 기존의 문화자존의식과 일체성의 유지 위에 조선을 중화로 보는 조선중화의식이 대세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명은 예전에 존재했었던 문화이념의 상징물로서 철저히 관념화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런 문화자존의식·문화적 자신감 위에서 조선의 문화는 그 자체만으로 우수한 것이며 조선의 物産도 조선의 경제생활에 충분한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세 속에서도 그와는 다른 입지에서 조선의 주체를 설정함으로써 대명의리론을 근본적으로 회의하기에 이르는 사상적 지향의 계기가 주목된다⁶⁰⁾.

따라서, 18세기 후반 노론의 한 일파가 제기했던 북학론에서의 대명의리론은 17·18세기의 정통적 대명의리론과 그 성격을 달리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학론은 17세기이래 조선 사상계에서 통용되어 왔던 ‘대명의리론-문화자존의식-북벌대의론’을 해체시켜 조선 지식인의 명분론적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를 하게 되었다.

19세기 순조 代 이후 조선 사상계에서 북학론이 중앙정계의 대세를 잡게 되었다. 이의 실천으로 조선이 청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중화문화는 ‘청이 명으로부터 뺏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니 이를 거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설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선진문화국가로 부상한 청의 것임이 분명해졌다. 박규수가 “朝鮮禮義之邦”이라는 문화자존적 표현을 통렬히 비판한 것은 대명의리론·문화자존론과 함께 이제 기존의 중화주의적

60) 홍대용이 地界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가 분명히 夷임을 확인하고, 그 위에 “華夷一也”라 하여 華夷 각각의 대등한 주체를 인정하는 획기적 주장을 했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비록 노론계이기는 하지만 조선의 사회·문화에 대한 사실적 인식에서 그 후진성을 통감했던 박지원 등의 부류에게서 나타난 것이다. 이는 명의 실체가 관념화된 당대의 대명의리론에 의해 부동의 충실성을 피력하지만, 조선과 조선문화가 어쩔 수 없이 이적에 불과한 것임을 직시하고, 조선문물을 청문물과 비교하여 객관화시킴으로서 조선의 문화자존의식을 반성하는 면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노론의 북벌대의론과는 대척적인 주장으로서 북학론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유봉학, 앞의 논문).

세계관까지도 무너지기에 이른 조선 사상계 일각의 동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洛論의 홍적필이 스스로를 陪臣의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大明遺民으로 자처하여 대명의리론을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말하자면 19세기 중반 이후 북학을 광범위하게 수용하던 중앙학계의 외곽에 위정척사론을 주장하던 보수적 산림유자들이 관념화된 명의 존숭을 내세우면서 북벌대의론을 환기하고 조선의 문화자존의식을 고양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이미 약화되었던 만큼 그들의 대명의리론도 북벌대의론·문화자존의식과 유리된 채 그 스스로 붕괴했던 것은 불가피했다.

Ⅲ. 사대부의식과 대외관

1866년(고종3년) 25세의 젊은 선비 홍순학은 進賀謝恩 兼 嘉禮冊封奏請使⁶¹⁾ 중에서 서장관의 자격으로 청나라를 다녀왔다. 이처럼 젊은 나이에 사대부라면 누구나 꿈꾸어 오던 사행에 당당히 三使의 한 자리⁶²⁾를 차지하여 떠나는 일이라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기도 하다. 작가는 꿈에도 그리던 연행에 참가하게 된 기쁨과 연행 과정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일들을 <연행가>에 서술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연행가>의 작품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작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홍순학의 사대부의식과 대명·대청관과 대서양관을 중심으로 서술해 보고자 한다.

1. 사대부로서의 자의식과 내면표출

홍순학이 그토록 바라던 연행의 길에 올라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마음껏 써 보인 것이 <연행가>이다. 하지만, 작가는 연행 이전에 보다 먼저 연행에 참가했었던 사람들이 남긴 저서들을 必讀書로서 꼼꼼하게 읽었을 것이라고 앞서 이야기한 바 있다. 그들의 연행록이나 연행가사를 참고로 하여 <연행가>를 저술했을 것이며, 그러면 당연히 그들의 생각이나 사상 등도 그 속에 녹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先연행자들의 생각이나 사상에 대

61) 우의정 유후조 등을 보내어 咸豐帝(문종 현황제)를 太廟에 祔廟한 것을 하례하고, 詔書를 順付한 것, 帑을 하사한 것에 대하여 사은하는 방물을 移准하도록 한 것, 동지사 陪臣에게 賞賜를 加한 것, 표류한 백성들을 내보내 준 것을 사례하였고, 왕비의 책봉을 주청하였다(『국역 통문관지』 3집 11권 기인속편, p. 192).

62) 진하·사은·주청사의 경우 정사는 대신 또는 정1품 宗班이나 儀賓 중에서 고른다. 그리고 부사는 중2품을 정2품으로, 서장관은 정4품을 정3품으로 1품계씩 올려주는 것이 상례이다. 이는 통신사행의 정사가 최고 당상 정3품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신사행보다 연행사행을 더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작가의 동감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홍순학 역시 전통적 사대부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조선시대 전통적 사대부란 어떠한 사람들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선비⁶³⁾라는 말이 있다. 선비는 '儒'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조선 중기 이후부터 '士'의 뜻으로 쓰이기도 했다. 이들은 治者계급으로서 한자로 '士大夫'라고도 불리는 양반의 한 종류⁶⁴⁾이다. 선비들은 고려 말 '節義'를 지켜 三隱이라 불린 정몽주·이색·길재를 숭상했는데, 그 정신을 계승하여 '忠'을 중히 여겼다. 또한 선비는 '삶의 궁극적 물음'인 종교관을 통하여 만물과 사람이 생겨난 始原을 알게 되고, 여기서 족보며 조상·제사 등을 중히 여기며 '孝'를 강조하게 되었다.

선비의 철학적 기원은 李滉과 李珥의 학문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데, 이들은 인간이 창조물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이고 또 인간이 진실에 마음을 두면 至善하게 될 수 있다고 보는 人本主義者들이다. 그래서 선비 즉 사대부들은 일찍부터 인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고, 이는 서민의 생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선비가 지향하는 가치와 생활태도는 18~19세기 山林과 實學의 두 학파에서 잘 드러나 보이고 있다. 조정이 산림들을 예우하는 것은 군주가 그들의 안목과 조언을 구하기 위함이고, 대신들이 전제왕권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실학과 학자들은 탁상공론적인 학문을 지양하고 당대의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實事求是의 학문을 추구했다.

63)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 논문의 주장을 따랐다.

川島藤也, 「조선시대 선비에 대한 연구」, 『한국학 연구』 2,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1990.

노상오, 「선비정신의 연구」, 『논문집』 31, 부산교육대, 1995.

64) 박지원은 <양반전>에서 “책을 읽는 자(讀書)를 '士'라 하고, 관직에 종사하는 자(從政)를 '大夫'라 하며, 덕망있는 자를 '君子'라고 부른다.”며 양반의 종류를 나누었다(박지원, <양반전>, 『연암집』 권8).

1) 연행 관료로서의 자부심

주지하다시피 홍순학은 진하사는 겸 가례책봉 주청사의 서장관⁶⁵⁾의 자격으로 연행길에 올랐다. 이는 백의한사로 종군했던 김지수나 자제군관이었던 유인목과 같이 자유로운 행동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신분이 신분이니만큼 연행 내에서 그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한 것이었고, 이에 비례하여 연행 관료로서 그의 자부심도 대단히 컸다. 그래서 작가는 <연행가>의 첫 대목에서 연행에 참여하게 된 기쁨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흥분된 어조로 자신이 맡은 직책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중책을 맡은 자로서 연행에서의 직무의 수행 과정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까닭에 홍순학은 <연행가>에 자신이 맡은 관료로서의 임무와 그의 이행 과정을 차례대로 적고 있다. 이는 앞의 두 사람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관료만의 고유 임무이기 때문에, 홍순학의 관료로서의 자부심을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된다.

그들의 연행은 1866년 4월 9일로부터 출발⁶⁶⁾한다. 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신의 임무를 순차적으로 잘 서술하고 있다.

하스월 초구일의 비표길을 정호엿네 / 성전각의 입시흐니 정중홀스 왕명이며 / 협낭문의
호직호고 인정전 비포흐니 / 장악원 일능악과 누른의장 버려세워 / 용전즈 압세우고

65) 관품에 따라 臺諫의 직임을 겸임하여 일행을 규찰 점검한다. 서장관은 날마다 사건을 기록하였다가 회환한 다음에 承文院에 啓下한다. 『경국대전』에 나와 있다. 국초에 문강공 조말생이 京師에서 돌아오면서 귀로 들고 눈으로 본대로 따로 기록하여 조목별로 啓聞하였는데, 서장관이 들고 본 사건을 기록하는 것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국역 통문관지』, 앞의 책, p. 101).

66) 『고종실록』에 보면 “初九日召見奏請三使臣(正使柳厚祚副使徐堂輔書狀官洪淳學)辭陞也”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종실록』 고종 3년 4월 9일).

『승정원일기』에는 “上御誠正閣三使臣入……奏請正使柳厚祚副使徐堂輔書狀官洪淳學以次追伏訖上曰史官分左右上曰三使臣追前厚祚等追前訖上曰遠路往役極爲難矣厚祚曰臣以衰朽匪才猥庸莫重專對之任不克負荷是懼是慄矣上曰譯官輩各別操飭勿爲貽笑於他國也厚祚曰各別團束矣上曰善爲往還也厚祚曰無事浚還惟王靈是伏矣上命史官就座又命退使臣諸臣以次退出”(고종 3년 4월 9일, 『승정원일기』 고종 2, 국사편찬위원회, 1973, p. 149)라고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빅관이 삭로와 / 승례문 니다라서 모화관 스테고67)

위를 보면 拜表길을 정해서 誠正閣에 입시하여 왕을 배알하고 나와서 慕華館에서 첫 번째 查對68)를 했다. 『통문관지』에 따르면, 사신이 연행을 떠날 때면 서울에서 3차례의 사대를 행한다고 한다. 먼저, 승문원에서 黑草를 사대하고, 方物을 封裹하는 날 의정부에서 사대하고, 마지막으로 배포하는 날 모화관에서 사대한다. 그리고 사신의 행차가 출발하면 道程 중에 황주·평양·의주 3곳에서 또 다시 사대를 행하는데, 이는 작품의 빠른 진행을 위해 짧게 기록69)하고 있다.

사대를 할 때에는 삼사신이 公服을 갖추어 입고 탁자 옆에 侍立하고, 일행 중의 사람을 골라서 흑초를 읽게 하고서 확인한다고 한다. 작가는 이 모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사실에 입각하여 차례대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연행의 임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서장관 혼자 아니라 삼사신이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관찰적인 입장의 유지가 가능했던 것 같다.

하오월 초칠일의 도강날즈 정호여네 / 방물을 정검히고 횡장을 슈습호여 / 압록강변 다
다르니 송각정이 여괴로다 / 의주부운 나와안고 다담상을 츠려놋코 / 삼사신을 전별호
시 쳐창키로 그지없다 / …… / 장계를 봉헌후의 썰더리고 이러나서70)

위의 인용문은 도강하는 날에 方物을 점검하고 행장을 수습하는 모습이다. 『통문관지』에서 압록강을 건너는 狀文인 渡江狀에 보면 “서장관은 本道の 도사와 의주부운과 더불어 강변에 장막을 치고 앉아서 말에 싣고 가

67) <연행가> p. 442.

68) 『통문관지』에 보면, “查對 문서는 程道에 오르기 7·8일 전에 啓達하고, 2일 전에 베껴 쓰기를 끝마치는데, 승문원 제조가 감독하여 바치며, 拜表하는 날 의정부와 6조와 승문원의 제조와 정사·부사가 다시 사대한다”고 되어있다(『국역 통문관지』, 앞의 책, p. 126).

69) <연행가> p. 448와 p. 456.

70) <연행가> p. 460.

는 물건을 搜檢하고 人馬를 點閱하며, 강을 건너 간 뒤에는 정사와 부사가 국왕에게 馳啓한다. 돌아올 적에도 강을 건너오는 날 다시 점열하고 국왕에게 啓聞한다. 그런데 중국에 들어갈 때의 여마와 중국에서 나올 때의 延卜馬 등을 책문 밖에서 만약 매매하는 자가 있으면, 의주부윤과 서장관을 아울러 중한 형벌로써 논죄한다”고 기록되어 있다⁷¹⁾. 위의 인용문은 서장관이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지금까지가 국내에서의 임무라면 이제는 중국 땅에 들어가서의 임무이다. 여기서도 서장관 개인의 단독 행동보다는 삼사신이 단체로 국외에서 행하게 될 임무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네서부터 산스신이 차례로 드러갈지 / 스문을 맡게시러 황보딛혀 압세우고 / 녁관군관 뒤쓰르와 티평초을 모르가니⁷²⁾

위의 인용문은 연경으로 들어가는 문인 조양문으로 들어가는 장면이다. 이후에는 입경한 사신 일행이 해동관에 묵는 내용⁷³⁾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사실들 역시 『통문관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⁷⁴⁾. 여기까지가 사신이 회

71) 그리고 덧붙여서 서장관이 그러한 임무를 꼭 맡아야하는 까닭이 부연되어 있다. 강희 정해년 備局의 節目에 “사행이 왕래할 때에 책문 밖에서 開市하는 것을 전후로 엄격하게 申飭하여 금지하였는데도, 의주에서 기꺼이 봉행하지 아니하여, 근래에 오히려 이러한 폐단이 있습니다. 禁物을 가진 潛商들이 이를 말미암는 것이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폐단이 있어서 일로 인하여 발각이 된다면, 해당 부윤을 잡아다가 문초하고 죄를 정하며, 서장관을 중한 형벌로써 논죄할 것입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국역 통문관지』, 앞의 책, p. 133).

72) <연행가> p. 492.

73) <연행가> p. 494.

74) 사행이 북경에 들어가는 날 迎送官과 衙譯이 앞서 站에서 먼저 말을 달려 와서 예부의 회동관에 조선사행의 도착을 알린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는 몇 사람이 와서 동약묘에서 사신들을 맞이하는데, 삼사신은 公服을 갖추고, 前陪를 제거하고, 轎子와 日傘을 없애고 그들을 맞는다고 한다. 사행이 제화문을 거쳐서 회동관에 있는 관소에 들어간다. 그런데 만약 다른 나라의 사신이 먼저 들어가 있으면, 관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했다. 제독 이하 대사·대통관·차통관 등 여러 사람들과 序班·館夫·阜隸 등이 일제히 모여서 衙門에서 사행을 待候하는데, 정사 이하가 모두 대문 밖에서 下馬한다. 舊例에는 정사 이하가 제독에게 견관례를 행하였으나, 지금은 견관례가 없고, 하마한 다음에 관소에 들어가

동관에 입실하는 전 과정이다. 홍순학은 자신이 관료로서 보고 경험한 것을 비록 짧은 몇 구로 기록하는데 그치고 있지만, 사신행차에서 중요한 것은 놓치지 않고 꼭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연행의 목적인 예부에 자문을 바치는 것이다.

네부지휘 드리어서 포즈문 진정홀츠 / 네부의 나아가서 디청우허 올라가메 / 네부상서 나와서니 보석증증 일품이오 / …… / 즈문을 밧드려서 상서의게 봉전호고 / 삼사신 꾸러안져 아홉 번 고두호너 / 네필후 도라오니 스신홀일 다호였다75)

척비준형 맞춤되여 칙스까지 파정되니 / 신민경륙 호운연뉴 겹호여 양인소설 / 장계로 상달코져 별선너를 출승호니 / 그익일 예궐호여 오문밧기 하직호니 / 황상이 상을주심 네부상서 거헝호나 / 삼스신과 녍관이며 마두와 노자까지 / 은즈며 비단등속 츠레로 바다노코 / 삼비의 구고두로 스투코 도라오니 / 상마연 잔치호나76)

위의 두 인용문을 보면 사신의 할 일은 비록 짧지만 그 동안 그는 많은 것을 보고 관찰했다. 이는 『통문관지』의 ‘表文·咨文의 呈納77)’에 나와 있는 것과 거의 틀리지 않을 정도로 상황을 자세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으로 돌아와 홍제원 모화관에서 복명을 하는 것으로서, 사신으로서의 기나긴 연행의 임무를 마무리짓고 있다.

는데, 때때로 혹은 서로 상면하게 되면, 다만 손을 들어서 정성을 보일 뿐이라고 했다. 그리고 상통사가 報單을 아문에 전달한다(『국역 통문관지, 앞의 책, p. 150).

75) <연행가> p. 496.

76) <연행가> p. 560.

77) 表文·咨文의 呈納에 보면 “구례에는 북경에 들어간 다음날 정사 이하가 公服을 갖추고 표문과 자문을 받들고, 예부에 나아갔다. 먼저 상서에게 견관례를 행하고, 정사가 자문을 받들고 꿇어앉아서 고하기를 “국왕의 자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상서가 명하여 이것을 받도록 하고, 다시 말하기를 “일어나도록 하시오.” 라고 한 다음에 정사가 일어나서 물러 나와 쉬는 곳에 돌아와서 앉았다. 통사로 하여금 표문을 의제사에 바치게 한 뒤에 정사 이하가 주객사와 의제사의 양쪽 관사에 두루 찾아가서 예를 행하고, 이것을 파한 다음 돌아왔다.”고 기술되어 있다(『국역 통문관지』, 앞의 책, p. 153).

홍계원 모화관의 낙양친봉 서로뭇고 / 인정전 숙빈후의 등화당 입시하니 / 원영의 미친
벼라 무스왕반 복명호고78)

지금까지 보아온 홍순학의 모습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작가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가사의 내용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이러한 직무의 끝에 <書狀官別單>79)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서장관들의 임무로서 연행 후 임금에게 올리는 복명서이다. 작가는 이 복명서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연행에 있어 자신의 임무에 더욱 충실했을 것이다. 그래서 홍순학 뿐만 아니라 서장관들의 이러한 별단은 조선에 있어 중국의 사정을 가장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중요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홍순학이 연행에의 직무 과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연행 관료로서의 자부심이 뒷받침되어 있다. 이러한 자부심은 연행 길에서의 고생마저도 달게 받아들이는 자세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함께 연행을 하는 무리들에 대한 염려의 마음 역시 삼사신이라는 신분적 윗사람으로서의 배려인 것이다.

일단 집을 떠나면 고생의 시작이다. 이는 사신의 행차일지라도 예외는 아니다. 평생에 고생 한번 안 해보고 자라왔던 사대부들에게 있어 이는 여간 힘든 경험이 아닐 수 없다.

78) <연행가> p. 568.

79) <書狀官洪淳學首譯玄鏗進見聞別單>

書狀官別單一彼地農形闕內闕外春夏之旱少爲惜乾自六月初累得驟雨黍粟糖稷均是登稔南方諸省自春徂夏兩水調勻優爲中稔徽州府歙縣五月中旬大雨起蛟蛟水所經績溪宣城當塗蕪湖涇縣等處田廬堤堰多有漂沒居民酷被其災一皇帝御弘德展日開講筵留心勤工經史囊帙已爲畢講學漸至將就之城一長寧知縣宋錫庚嚴戢匪類安撫居民吳川知縣姜光耀勵精圖治威惠兼施二人均有勞績俱蒙獎褒之典一彰明縣舉人陳代芝讀書寶圖山中絕跡城市著有四書集粹反日省抄錄諸書恪守程朱安貧樂道爲鄉里矜式特賜國子監以爲表率士林一南方土匪之盤踞響應者右江摠兵黃仲履擒捕截殺廣西浙江等省今已肅清而貴州一省尙有餘黨一廣東湖南之間游勇成羣往往敵血會盟號曰哥老會至有各省官軍之潛相嘉應實爲亂階皇旨嚴飭各省期於禁斷一甘肅陝西等地回匪自春猖獗徒黨尙多盤據詔叢吉林等處兵往討之臣還出山海關路見四隊兵過去果是吉林寧古塔黑龍兵一千人方向甘肅云(서울대 고전간행회, 『일성록』 고종편 3, 서울대 출판부, 1967~72, p. 408).

쥬방으로 상을차려 점심을 가져오니 / 민쌍의 내려안져 중화를 하여보즈 / 앓가가지 귀
튼몸미 어이졸지 천하여서 / 일등명창 진지거리 슈청기싱 어디가고 / 만반진슈 조흔반
찬 것반도 업스나마 / 가이업시 되어스나 엇지아니 우수으라⁸⁰⁾

위의 인용문들을 보면 맨 땅에서 중화를 하게되자 “앓가가지 귀튼몸미
어이졸지 천하여서”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접대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사대부들에게 있어 이러한 경험은 새롭고도 값진 것일 수밖에 없다. 이는
<북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마천관 지나가니 너른드리 군막첫너 / 승부스 서중관은 즈리의는 안거니와 / 그나마지
우리들은 풀밭희 물너안즈 / 밥바다 손의들고 한술두술 썬먹으니 / 다담상 고비음싯 시
러시러 마라드니 / 초박흔 이음식이 엇지이리 다단말가⁸¹⁾

홍순학의 ‘견양경 밥흔그릇 일엇툃 감식하니’나 유인목의 ‘초박흔 이음식
이 엇지이리 다단말가’에서 볼 수 있듯이 고생은 작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
하는 마음을 배우게 해 준 값진 경험인 것이다.

금석산 지나가니 은정평이 여기로다 / 일세가 황흔하니 혼돈하며 숙소호즈 / 삼사신 즈
논더는 군막을 놓피치고 / 샷즈리를 들어막아 가방쳐렘 하여스리 / 역관이며 비장반장
불상하여 못보겠다 / 스면외풍 드리부니 밤지너기 어렵도다 / 군막이라 명식하미 무명
흔겍 가려스니 / 오이려 이번길은 오늑월 염천이라 / 하로밤 경과하기 과이아니 어려오
나 / 동지섯달 긴긴밤의 풍설이 드리칠체 / 그고싱 웃더하라 참혹들 하다하테 / 처처의
화도불은 호인등이 둘러안고 / 밤식도록 나발소리 즘심을가 넘에로다⁸²⁾

한 데에서 군막을 치고 숙소를 정한 이야기는 <연행가> 뿐만 아니라 대
부분의 연행가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연행하는 사대부
들에게 있어 평생에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라는 뜻이다. “역관이며 비장

80) <연행가> p. 462.

81) <북행가> p. 116.

82) <연행가> p. 462.

반장 불상하여 못보겠다”라는 장면에서 자신의 고생도 고생이지만, 함께 여행하는 무리들의 고생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인간적인 동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간애적 측면의 발전으로 “오이려 이번길은 오늬월 염천이라 / 하로밤 경과하기 과이아니 어려오나 / 동지섯달 긴긴밤의 풍설이 드리칠제 / 그고성 웃더하라 참혹들 허다허데”라며 자신의 고생을 위로하고 있다.

이러한 장막을 치고 숙소하는 서술은 <연행별곡>·<서행록>·<북행가>를 포함하여 함께 여행에 동행했던 작자미상의 「연행일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몽고장 넓게 치고 호표굴의 한둔하니 / 치음도 칩거니와 심소도 가이 업다 / 동지밤 계우 시와 혈압의 들어가니 / 만상군관 장막더를 렬풍에 셋거 노해 / 잇들을 노숙하고⁸³⁾

온정들 여긌러가 한지의 경야하니 / 겹휘장 무슨것고 샷즈리 추억허다 / 남함소리 잠못 들고 음기는 몸의비니 / 흥년 스십의 고향이 처음이라⁸⁴⁾

무변광야 초목중의 군막이 허다허다 / 군막모양 엇듯던고 구를파고 불을질너 / 그후의 나모페고 느무우회 갈석페고 / 훗배장막 들너치고 그안의 누어시니 / 바닥은 더우나마 면상의는 이슬일시 / 상고벽성 도여던가 혈쳐는 무손일고 / 각동의 즈을지어 만신한전 절노나너⁸⁵⁾

至金石山下……且山下膏腴之壤蕪沒於荒草之中只爲虎豹窟宅惜哉此處掘地熾炭上設板木四面以白布帳莎簣等作戶牖樣可堪一夜休息帳外各藝巨木堆廐役之輩有寒而向火者有呼人者有相應者有抹馬者如春曹場屋之懸燈聚首而坐往吹角角人聲不絕蓋防虎之計也⁸⁶⁾

83) <연행별곡> p. 191.

84) <서행록> p. 155.

85) <북행가> p. 118.

86) 금석산 아래에 이르니 …… 계다가 산 아래 기름지고 비옥한 땅은 잡초가 우거진 사이에 숨어 있어, 단지 호랑이와 표범의 굴집이 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곳에 땅을 파고 솥을 태운 위에 판목을 사면에 설치하고 흰 배 장막과 사초·대자리 등으로 출입구와 들창을 지으니 그 모양이 하룻밤의 휴식을 감당할 만 하다. 장막 밖에는 각각 큰 나무를 심어 쌓아두었다. 종과 일꾼들의 무리에는 추워서 불을 향하고 있는 자도 있고 말을 씻는 자도 있어, 마치 春曹과거 시험장에 등불을 높이 매달아 놓은 것과 같았다. 머리를 모아 앉아서 가

그만큼 사대부들에게 있어 고생의 경험은 신선한 작품의 새로운 소재거리였던 것이다. 새로운 경험은 새로운 관심을 썩트게 한다. 그래서 고생의 경험은 그의 시선을 더 이상 사대부들이나 기생에게만이 아니라 서민에게까지로 돌릴 수 있게 하는 자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청나라에서 들어서면 귀족이나 부자들의 생활만이 아니라 일반 서민의 생활에까지 깊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2) 文士로서의 자부심

홍순학은 16세의 어린 나이에 과거에서 丙科로 及第한 사람이다. 이 정도의 재능을 가졌다면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재능을 아무리 감추려 해도 이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 보이지 않을 수는 없다. 이러한 자부심은 조선시대의 사대부 계급이라는 자부심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힘들어스 서장관은 직책이 들홀시고 / 겸직은 스복판스 어영낭청 찍여시니 / 시년이 이십오라 소년공명 장호도다⁸⁷⁾

가논스람 오논스람 길짜의 미만하여 / 우리러 쳐다보니 저의씨리 호논말이 / 장호도다 저스쏘야 춘츄가 언마신지 / 저럿툃 소년서장 이근니의 처음일다⁸⁸⁾

위의 두 장면은 작가의 재능에 대한 그리고 신분에 대한 자부심과 자량이 잘 보여주고 있다. 처음 삼사신에 임명된 후 스스로 그 자신을 대견해

꿈 뿔을 불고 사람 소리가 끊이지 않으니 어찌 호랑이를 막는 계책이 아니겠는가(임기중 편, 『연행일기』, 『연행록 전집』 75, 동국대 출판부, 2001, p. 313).

『연행일기』는 그 서두에 “大清同治五年丙寅四月初九日以柳丞相(厚祚)爲中宮殿嘉禮後冊封王妃奏請正使余以丞相府從事官陪行是月初九日自京城離發至六月初六日始到皇城其所經歷處宮室之壯麗人物之繁庶實書不盡言言不窮形始自渡江日略陳槩其序次如左”라고 쓰여져 있어서, (유)승상의 종사관으로 연행에 참가한 작자 미상의 한문기록 작품임을 알 수 있다.

87) <연행가> p. 442.

88) <연행가> p. 450.

마지않는 모습이며 사신의 행차가 평양 땅에 들어섰을 때, 길가의 구경 나 온 사람들이 위풍당당하고 위엄 있는 삼사신의 행차 모습 중에서 유난히 젊은 자신을 보고 칭찬하는 말을 아끼지 않는 것에서 작가는 젊은 사대부로서 나라의 명을 받고 연행을 떠나게 된 자신의 재능에 대한 자부심이 극치에 올랐을 것이다.

이러한 재능의 자랑은 청나라에 들어가서 여러 고관대작들의 집에 초청되어 필서로서 문답이 오가던 장면에서도 나타난다.

황낭등과 동혹스도 제집으로 청히가니 / …… / 장한님과 왕어시며 방낭등과 왕고부도 / 훈덕식 츠려노코 우리를 오라히테 / …… / 모드다 문장지스 문필을 조하히여 / 만당시 체격으로 글지어 서로웁고 / 왕회지 필법으로 글시써서 즈랑히기 / 니아모리 무식히여 문필이 부족흐나 / 되지못한 글귀땀귀 즉시지어 화답히고 / 변변차는 글시줄노 쥬런 처럼 써서되니 / 칭찬이 분분히여 겸스가 과도코나⁸⁹⁾

중국으로나 일본으로나 모든 사행의 길에서 筆書로서 兩國의 지식인들이 文答을 해왔던 것은 오랜 전통임에 틀림이 없다. 비록 중국·조선·일본의 언어가 다르지만, 漢字라는 특수열쇠가 통용되는 한 언제나 동아시아의 문화는 하나로 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⁹⁰⁾. 이러한 사실을 익히 보고 들어왔던 홍순학 역시 이렇듯 먼 길을 와서 외국의 문사들과 함께 필담을 나누어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위에서는 비록 “니아모리 무식히여 문필이 부족흐나”라고 겸손의 말을 표현하고는 있지만, 외국의 문인들과 상대해서 조선의 사대부가 결코 변변찮은 글로 상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신의 모든 글재주를 동원해 최선의 글귀를 적었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듣게 된 칭찬은 젊은 사대부에게 학문에의 精進에 있어

89) <연행가> p. 556.

90) 저의들과 우리들이 언어가 갖지안하 / 말흔파디 못히보고 덤덤히니 안져시니 / 귀막리 벵어런듯 풀쓰름 서로보다 / 천하의 글을갓하 필답이나 호오리라 / 당연의 먹을갈아 양호슈필 덤벽찌어 / 시견지을 썬혀들고 글시써서 말올히니 / 못는말과 더답힘을 글귀절노 오락가락 / 간담을 슈운히여 정곡상통 호느고나(<연행가> p. 552).

더욱 격려가 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일이 되었을 것이다.

중국에 삼사신의 자격으로 연행의 길에 오른 것은 개인적으로나 가문적으로 크나큰 영광이며, 자신의 文才를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자부심마저 갖게 한다. 이러한 사대부 지식인의 학문에 대한 자부심은 오랫동안 국문학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3) 지공과 기생에의 관심

중국으로든 일본으로든 사신 행차를 가는 사람들은 그 길이 멀고 험함으로 인해 도중에 있는 각읍에서 목을 수밖에 없다. 이때 각 읍에서는 사신들을 맞이하여 支供이라하여 숙식을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동시에 守廳妓生을 제도적으로 제공하여 왔다⁹¹⁾.

그래서 사대부들은 사행의 길에 오르면 그것이 성대하든 그렇지 못하든 지공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고, 또한 연행가는 관료로서 그들 신분의 큰 특권이기도 했다.

읍니를 드러가니 숙소참 예로고나 / 다담상과 죽물상과 찬읍거행 가련하도 / 느진식후
군녕으로 파주목 숙소하니 / 터소읍니 판니하야 거행이 초승하도⁹²⁾

작은 읍에서는 지공의 거행이 可憐하더니 큰 읍내에 오니 그 거행이 稍勝하다고 하여, 대소 읍내 간의 지공의 차이를 간단히 말하고 있다. 평상시에 지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더라도 말로만 듣던 그러한 대접을 자신이 직접 받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91) 기생은 사행원들에게 제도적으로 허가되었다. 서기를 포함한 四文士는 물론 역관·초관·비장 등에게도 기생의 혜택은 주어졌다(고순희, 「18C 향촌지식인의 선비의식-일동장유가를 통하여」, 『한남어문학』 17-18, 한남대 국어국문학회, 1992, p. 161).

그리고 이러한 기생에 관한 이야기는 김인겸의 <일동장유가>나 유인목의 <북행가>에서 많은 소재로 쓰이고 있다.

92) <연행가> p. 444.

다담상을 물너쥬고 기성불너 술권호니 / 큰상을 바다노코 희식니 만면혼중 / 어렵고도
붓그러워 엇지홀줄 전혀몰나 / 좌불안석 호는모양 그도또한 장관일다⁹³⁾

어렵도다 이너몹미 한미혼집 스람으로 / 이십여년 칙상물임 졸적이 자라나서 / 강산풍
월 조흔곳의 어디흔번 도라쓰라 / 청누쥬스 발뻐터며 외입물정 알아쓰라 / 처음으로 당
히보니 풀풍류를 면홀소나⁹⁴⁾

위의 인용문들은 처음에 큰상을 앞에 두고 기생을 불러서 술을 권하니
喜色이 滿面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렵고도 부끄러워 坐不安席하는 모습이
장관이라며 지공의 대접에 아직은 익숙치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리고 자신이 寒微한 집 소생으로 20여 년 공부만 하며 졸적이 자라와 그동
안 한 번도 江山風月이며 靑樓酒肆와 같은 풍류의 세계에 발 디더 보지 못
했다고 실토하고, 평양 땅에 와서 ‘처음으로 당해보니 拙風流를 면할소나’
고 하면서 멋쩍어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반면에 김지수는 아래에서 보다시
피 비록 그 대접은 蕭條하지만 자신이 삼사의 신분이 아니라 백의한사의
신분으로 연행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에 맞는 것이라며 자족하고 있다.

오십니 고양춤을 취중의 득달호니 / 소조흔 다담상은 한스의 비격이리⁹⁵⁾

홍순학이 처음에 느낀 지공에의 어색함은 뒤로 갈수록 점점 익숙해져 가
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공이라는 것이 연행가는 사대부 관료
로서의 특혜이기에, 처음의 어색함을 깨치고 그들의 접대 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것이다.

어엿부다 슈청기성 녹의홍상 단장호고 / 큰머리 가리마와 도화분 성적호고 / 다담쥬물
진지거러 여러히 병창호니 / 영본부 감상아전 즈하로 거힘하네⁹⁶⁾

93) <연행가> p. 448.

94) <연행가> p. 452.

95) <서행록> p. 141.

96) <연행가> p. 450.

특히 위의 인용문처럼 수청기생의 접대란 일반 사대부로서는 바라지도 못하는 더 큰 특혜인 것이다. 이러한 풍류의 흥은 계속 이어져서 이제는 平安監司가 되어 영원히 이러한 세상에 머물고 싶은 바람⁹⁷⁾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에서 작가의 사대부로서의 자부심을 읽어낼 수 있다.

지공은 처음으로 연행에 임한 신출내기 사대부에게 官僚라는 신분적 자부심을 가지게 해주고, 점점 그리고 서서히 관료들의 접대문화를 즐기게끔 만들어 주어, 신분사회인 조선에서 그 자신이 사대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해 주었다. 이는 자신이 속한 '사대부 계급에 대한 자부심' 내지는 '신분 지속의 기대'라는 보수적 사대부의식 지속적 유지의 측면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함께 연행에 참가하여 모든 자리를 공유할 수 있었던 유인목은 홍순학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기생의 접대문화에 빠져든다. 그 결과 <북행가>는 그 작품 속 내용의 대부분을 기생과의 열정에 할당하고 있을 정도로, 유인목의 기생과 지공에 대한 관심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유인목이 특별나서가 아니라 이 역시 모든 사대부들의 의식적 모습을 그가 유독 자세히 기술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관심은 사대부 남성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의식이라고 해도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사대부들만의 문화인 지공과 기생 접대는 전통적 사대부들의 의식에서 19세기 사대부들의 의식으로까지 공유의식을 통해 계속 유지되어 나가고 있었다.

역사 속에서 기생의 문화가 전통적 사대부 남성들의 의식 속에 얼마나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생과의 만남은 우리나라 고전문학에 있어 얼마나 많고 다양한 소재가 되어왔는지 역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는 작품 <연행가>가 기행문학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취약점으로 분류되는 문학성의 제고에 기여

97) 평양갓튼 조흔장산 소강남을 일너스니 / 팔도올 다보야도 예만흔더 업다흔데 / 빅스의 원을말고 평안감스 원을호고 / 잇던스름 팔즈조아 신선의 연분인가 / 이럿듯 별세계의 청복을 누리던냐(<연행가> p. 454).

를 하고 있다. <북행가>가 다른 연행가사들에 비해서 그 문학·예술적 측면에서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는 것도 모두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이다⁹⁸⁾.

5) 가족에 대한 그리움

사대부들은 '삶의 궁극적 물음'인 종교관을 통하여 만물과 사람이 생겨난 始原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부터 족보·조상·제사 등을 중히 여기며 부모에게 '孝'를 강조하게 되었다⁹⁹⁾.

가족은 어느 한 개인에게 있어 가장 私的인 사회이다. 그러므로 가족에 대해서는 그 누구라도 가장 개인적이고 사적이며 애뜻한 감정이 묻어 나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효심'이나 가족에 대한 '사랑·그리움' 등은 우리나라 문학에 있어 작가의 인간적 면모를 드러냄과 동시에 문학성의 첨가에 一助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족을 떠나 멀리 여행을 가게 되면 집 생각이 절로 드는 법이다. 더구나 조선과 같이 충과 효를 으뜸으로 여기는 유교 국가에서 태어나 평생토록 부모 곁을 떠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심정을 말로 다 할 수 있을까? 홍순학은 상당히 많은 분량에 걸쳐서 자신의 이러한 감정을 거침없이 피력하고 있다.

집안을 생각하니 심회 창년홀스 / 현당의 빅발노인 신앙가로 되셔잇고 / 청춘의 절문 안
히 금슬이 남다르다 / 무형대 혈혈독신 외롭도다 이너몸이 / 원노의 떠나가며 가스부탁
홀곳업다 / 봉명이 지중기로 무가너하 홀일업다¹⁰⁰⁾

위에서 아직 연행의 행차가 출발하기도 전부터 그가 生養家의 부모님과 젊은 아내의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부

98) 권영철, 앞의 논문, 1976.

99) 노상오, 앞의 논문, p. 8.

100) <연행가> p. 444.

모נם에 대한 생각은 孝의 차원에서 당연히 생각되는 것이라면 아내에 대한 애뜻한 감정은 여느 사대부 남성들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북행가>의 젊은 작가 유인목이 기생의 이야기로 작품의 대부분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면, 홍순학 역시 젊은 나이로 인해 아내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 보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가족과의 헤어짐에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奉命이 至重하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마음은 조선의 끝인 압록강을 눈앞에 두고서 연행에 대한 걱정으로 치달고 있다.

출계흔지 이십오년 시흔의 즈라나셔 / 평일의 이죽혀여 오러져나 본일업다 / 반년이나
엇지홀고 이위정이 어려우며 / 경곡지경 빅니밧긔 먼길단여 본일업다 / 허박하고 약흔
귀질 말이형역 걱정일세¹⁰¹⁾

한 번도 부모 곁을 떠나 먼길을 다녀본 적이 없는 그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걱정과 불안으로 휩싸이고 부모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마저 들고 있다. 이러한 작가의 모습에서 독자는 ‘자식은 부모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儒家的 孝의 當爲性을 읽어낼 수 있다.

지리하고 심흔극열 이고성 엇지홀지 / 삼천니 멀고먼길 몇달만의 득달혀여 / 큰병업기
천형이나 노독이나 업슬소냐 / 스지는 날연무긔 빅체가 구통이라 / 우뚝지 처음으로 곤
비흔중 괴롭도다 / 질통의 호부모는 인심 니여늘 / 만니타국 외로운몸 집싱각도 그음업
다¹⁰²⁾

봄이 아플 때처럼 부모와 가족이 그리지 않을 때가 없다. ‘疾通에 呼父母는 인생의 常’이라고 했다. 위의 인용문에서는 연경에 도착하자마자 그동안의 노독으로 병을 앓게 되자 홍순학은 도강 이후 신기한 중국의 경치와 사람들과 제도에 정신이 팔려 잠깐이나마 잊고 있었던 고국의 부모님 생각에

101) <연행가> p. 460.

102) <연행가> p. 494.

잠겨 흐느낀다.

이러한 부모에의 그리운 마음은 작품의 뒤로 갈수록 더욱 애타게 나타나고 있다. 여행지에서의 체류 날짜가 길어질수록 작가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만 가고 회환길에 오르기 시작할 무렵에는 이미 고향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아래처럼 발걸음이 느린 것을 탓하며 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해 보내기도 한다.

갈터뚫 물가흐로 기러기 떼로느니 / 저가러기 먼저가서 우리집 지나거든 / 나 오날 써나
온다 소식이나 전히주렴¹⁰³⁾

하지만 이러한 구절은 역시 <연행가>에서만 보여지는 것은 아니다. <연행가>가 마치 <서행록>을 보고 배긴 것처럼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¹⁰⁴⁾이다.

아래의 인용문 역시 홍순학이 연행길에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무치는 장면이다.

찬물식어 오난편의 집편지 붓쳐오니 / 스오삭 막힌소식 도로혀 겁이난다 / 근향의 정각
겹은 넷글귀가 뵈진홀손 / 스오삭 막힌소식 무슴소식 잇슬넌지 / 죠릿죠못보겐너 단
단이 마음먹고 / 피봉을 언듯보니 형혈평즈 죠홀시고 / 거룩하다 평을평즈 천만금이 너
모싸다 / 이한즈만 보오셔도 적이 위회되며 / 츠츠로 썬혀보니 원지반 편지로다 / 반가
울스 우리노친 안녕호신 친필이오 / 깃부도다 우리병쳐 무양호운 전출이라 / 이제야
음노히 입이절노 버는도다 / 일형이 서로무러 치호가 분분하다¹⁰⁵⁾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했던가? 귀환길에 받은 한 통의 편지는 너무나 그립고 궁금했던 가족의 소식임에 틀림없지만, 혹시라는 생각에 홍순학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 떨리는 손으로 펼친 편지에 노친의 안녕하심과

103) <연행가> p. 562.

104) <연행가>가 <서행록>의 내용과 일치하는 구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후 <연행가>의 문학사적 위상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105) <연행가> p. 564.

병든 아내의 無恙한 소식이 적혀있자 ‘천만금이 너무 싸다’며 평할 주자를 칭찬하고 있다.

연행길에서 맞게 된 부모의 生辰日은 그의 간절한 부모 생각에 절정을 이룬다.

츄팔월 초오일의 칩문을 다다르니 / 오날은 노친성신 이희가 비로논다 / 의려호심 작호
시라 불효호기 그지업다 / 만지장서 호신호서 권권호신 말습이라 / 근삼십세 되온조식
유치곳치 아르신니 / 친지 불원유는 넷스람의 교훈이라 / 불회호다 만니밧기 만년이나
찌느스니 / 붓그럽다 두린마음 돌더가 바히업다¹⁰⁶⁾

위에서 보듯이 ‘親在不遠遊’라는 옛 사람의 글귀까지 써가며 노친의 생신에 참여하지 못한 불효를 말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글귀는 조선시대를 살아온 모든 사대부들에게 있어 자식이 부모에게 어떠한 자세로 효에 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효도는 앞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큰 것이 아니라 그저 ‘부모 곁에서 있으라’는 단 하나이다. 작가는 이러한 명제를 <연행가>의 작품을 통해 독자에게 꾸준히 전달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서행록>의 표현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출하고 있다.

2. 역사의식과 대외관

연행가사는 중국으로 연행간 사람들이 남긴 가사이다. 그러므로 그 안에는 조선을 지나 중국으로의 여행 과정이 담겨 있다. 이러한 여행의 도중에 여러 명승지와 유적지를 지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작가는 자신의 역사의식이나 대외관을 작품을 통하여 드러내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작가의 ‘조선에 대한 역사의식’과 ‘대국에의 흠모’와 ‘송명사상의 유지’로 대변되는 ‘對明

106) <연행가> p. 566.

觀’, ‘반청사상의 유지’와 ‘관료로서의 청의 제도와 문물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는 ‘對淸觀’, 그리고 지극히 부정적인 ‘對西洋觀’이 서로 연계하여 연장선 상에서 서술되어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작가의 대외관이 19세기 후반이라는 시대적 조류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지 그 위상의 포착에도 일조를 하게 될 것이다.

1) 역사의식

주자학적 유교의 조선 사회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덕목은 나라에 대한 충일 것이다. 사대부들은 고려 말 ‘節義’를 지켜 三隱이라 불린 정몽주·이색·길재를 숭상했는데, 그 정신을 계승하여 ‘忠’¹⁰⁷⁾을 중히 여겼다. 하지만 그들의 충성심에는 전제가 있다. 만약 군주가 반도덕적인 폭군이 된다면, 선비의 충성심은 그 폭군에 반기를 들도록 작용한다¹⁰⁸⁾.

이러한 충의 명제는 고전문학의 전반을 통해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주제임에 틀림이 없다. 역대의 문학자들이 남겨놓은 충에 관한 글과 시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제는 연행가사의 곳곳에서도 발견된다.

홍순학 역시 연행길에 올라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지역에서의 사적을 들어가며 나라에 대한 충성스런 마음을 피력하는 글귀를 지어내고 있다. 여기서 작가의 국가관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충을 중시해왔던 조선 사대부들의 의식 측면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듯 하지만 그 개인만의 개별적인 국가관이기도 하다. <연행가>는 다른 연행가사 작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같은 지역을 지날 때마다 거기에 관한 고사나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이는 확실히 先연행자들의 의식이나 사상적 측면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보다 자세하고 보다 작가 자신의 주관적인 면모를 피력하고 있다.

107) 노상오, 앞의 논문, p. 7.

108) 川島藤也, 앞의 논문, p. 28.

개성 땅을 지날 때 선죽교를 둘러서 그곳에서 고려의 충신 포은 정몽주를 회상해 낸다.

선죽교가 어디메나 고적을 구경호세 / 고려충신 덩포은의 순절호던 곳시라네 / 다리우히 무든혈은 몇뵝년을 지너는지 / 풍마우세 지들안코 지금거지 완연도다 / 후세의 보논 슝롬 뉘아니 창감호라 / 숙모조 어떨비로 충절을 기록호스 / 다리우히 난간쳐서 형인을 금호시다¹⁰⁹⁾

위의 인용문을 보면 선죽교 다리 위에 모진 비바람에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血痕을 보면서, 비록 고려의 신하지만 그 충절만은 높이 사 숙종 때 御筆碑를 세워 충절을 기리고 있다고 하여, 시대와 왕조를 초월하는 충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 장면의 기록은 <서행록>·<북행가>에는 없다. 비록 <연행별곡>과 <서정별곡>에서 선죽교에서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다루고는 있지만¹¹⁰⁾, 이는 작가의 역사의식이 담겨있다고 보기에는 너무 짧은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대부들도 다루는 내용이기에 자신들도 관습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반면 홍순학의 의식 속에 간직되어 있는 ‘선죽교 정포은의 고사’ 역시 관습적으로 선택한 장면이겠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처럼 <서행록>의 문구를 그대로 베낀 듯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여기에 충신에 대한 추앙과 자신의 역사의식까지 첨가하여 더 자세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잇씩할 말호라면 우리나라 근본이라 / 쥬무왕시 괴즈계거 조선으로 쳐음오스 / 산명호고 슈려키로 천년도읍 터니로다 / 괴즈의 정전법은 옛뵝치 그려잇고 / 괴즈의 팔조지교 씨친왕화 그저잇다 / 함구문뵝 외성안의 괴자먹든 우물잇고 / 칠성문뵝 너다라셔 괴즈묘가 잇드호니 / 괴자묘 봉심호즈 감구지회 그음업드 / 고목과 거친풀의 땃천연 옛무덤가 / 양마석 망쥬석은 뽕뽕이 버러잇고 / 한조각 쓴어진비요 반쪽만 나머스니 / 슬푸다

109) <연행가> p. 446.

110) 만월디에 달만 붉고 선죽교의 절만 노파(<연행별곡> p. 189).

선죽교 나린 물이 지금의 오염호니 / 덩포은 권고원혼 여귀 아니 부쳤는가(<서정별곡> p. 425).

남진난의 왜놈이 작변하며 / 저모양이 되어짜니 더고나 창감하다¹¹¹⁾

위의 인용문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연행가사에서 짚고 있는 역사적 현장의 모습이다. 홍순학은 평양의 箕子墓에서 조선 역사를 箕子朝鮮까지 거슬러 올라가 기자의 井田法과 八條法을 들어가며 그 끼친 王化를 칭송하고 있다.

성양관 말마하고 지송관 도라드니 / 피슈에 빙합흔 더 련광이 어이였다 / 괴즈의 구봉이 오 팔조의 교민인가 / 셔관 쇠약이 이 짜히 거룩하다¹¹²⁾

등화의 잠깐 쉬여 괴즈성 드러가니 / 영명스 부벽누을 아니 보려 흐라마는 / 훗괴약을 머무로니라¹¹³⁾

예화로 묵은후의 평양성 드러가니 / 팔조 유교는 차즐더 바히업고 / 왕검 구적이 성첩이 예와갓다 / …… / 인현원 차자가니 괴자의 영정시오 / 괴자궁 괴자당은 고적이 습습하다 / 덩전하던 옛이랑 거민이 바출가니 / 방방흔 도로구혁 저저히 법네있다¹¹⁴⁾

괴즈궁터 보라하고 오교문 드러가니 / 괴즈정 우물우의 단가리 식겨있다 / 구쥬단 올라 보니 낙슈의 거북글이 / 산천의 글녀엇고 일천연 성인유평 / 팔조목 전송흐데¹¹⁵⁾

위 4개의 인용문에서 보듯 <연행가> 뿐만 아니라 연행가사에서 기자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인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조선 사대부들의 기자에 대한 사상적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래 부분에서는 이러한 기자조선의 역사적 자취가 임진왜란으로 훼손되어 있음을 한탄하고 있다. 이는 나라의 힘없음으로 인하여 역사의 현장을 유린당했다는 사실의 전달에 목적이 있기보다는, 이러한 역사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유구한 역사를 가진 朝鮮民’이라는 자부심¹¹⁶⁾에서 애국심으로까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111) <연행가> p. 454.

112) <연행별곡> p. 190.

113) <서정별곡> p. 425.

114) <서행록> p. 144.

115) <북행가> p. 92.

116) 이제목에서는 “우리본터 괴즈유민 씨친왕하 입어터니 / 은나라 넷일월은 예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다.

기자는 중국으로부터 (고)조선으로 건너와 나라를 세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때 중국으로부터 가져온 것이 정전법과 팔조법인데, 이는 중국과 (고)조선과의 관계 규명에 있어 그 위아래를 서열 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때 명의 태조가 '조선'이라는 국호를 하사했으니 명은 조선에게 '大造의 은혜'를 내린 것이다¹¹⁷⁾. 이 역시 조선은 명의 서열 아래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조선은 그 역사의 시작을 기자조선에서 찾음으로 해서 명과 조선의 사대관계의 정당성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의식은 조선 사대부들의 大明思想에 있어 崇明思想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기자에 관한 이야기'는 5개의 연행가사에서 모두 다루고 있지만 홍순학의 것은 다른 것들에 비해 길고 자세하다. 여기에는 그만큼 작가 자신의 역사의식이 첨가된 것이다.

의주에 도착해서 취송당을 들러 본 일도 마찬가지이다.

취송당이 어디메냐 옛일이 창감하다 / 임진연 선묘조의 쥬필호신 집이로다 / 시스올 생각하면 분기하기 그지업다¹¹⁸⁾

위에서는 임진왜란 시 선조가 서울을 떠나 의주까지 피란 간 슬픈 역사적 현실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창감하고 분개한다면서 독자로 하여금 애국심의 고취에 불을 붙이게 한다.

이렇게, 역사를 인용한 홍순학의 충의 국가관은 국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나라에 들어가서도 계속되고 있다.

와불줄 뜻히시랴(<연행가> p. 486)"라고 하여 기자유민으로서의 자부심을 한껏 드러내고 있다.

117) 景夏曰昔我太祖大王威化回軍格修侯度太祖皇帝特賜朝鮮之號錫以冕服朝鮮卽箕子舊號也以此錫號豈非百世不可忘之恩乎……上曰高皇有大造之恩神皇有再造之恩忘其大本似爲未安此子所以中夜怵惕者也(영조 25년 3월 23일, 『조선왕조실록』 43, 국사편찬위원회, 1979, pp. 335~336).

118) <연행가> p. 458.

병즈년 호란적의 효종왕 입심하사 / 이고기 너무실제 끼친주포 유전하니 / 호풍은 참도
찰스 구진비는 무삼일고 / 산곡간 험흔길의 창감키도 그지업다¹¹⁹⁾

위는 청석령 고개를 넘을 적에 병인년 효종의 고사를 떠올리며 쓴 것이
다. 하지만 아래의 인용문을 보면 <연행가>보다 <북행가>에서 더 자세한
서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청성영 올라서서 고스를 심각하니 / 전의 우리나라 병즈연 호란적의 / 효종디왕 출갈하
스 심양의 ㄱ실터의 / 이고기 올라계서 가스를 지어신디 / 청석영 너머서니 옥화관이 어
더미요 / 호풍은 춤도출스 구진비는 무삼일고 / 그뉘라 이너형식 그려다가 임계신디 전
희휴리¹²⁰⁾ / 그노리 한번음고 그쌍을 지너지니 / 교목세신 이너마음 빅세광감 절노는
니¹²¹⁾

홍순학과 유인목 둘 다 효종의 고사를 다루고 있지만 홍순학보다는 유인
목이 더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점에서 홍순학은 역사의
현장을 자신의 역사의식에 따라 선택적으로 확장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대신 아래의 인용문을 보자.

슬푸다 서문밧긔 삼혹스 통훈의빅 / 만니바긔 외롭다가 우리보고 반기는 듯 / 들으니 남
문안의 도선관이 잇드하니 / 효종디왕 들어오샤 몇히슈육 흐섯는가 / 병즈년 이원슈을
어느날 갑하보니 / 후세인신 네지닐제 분흔맛음 뉘업스라¹²²⁾

위의 인용문 역시 조선관을 지나면서 효종의 수모를 떠올린 것이다. 청
석령을 넘을 때에는 ‘창감하다’라고만 읊고 지나갔지만, 이제 조선관을 지
나니 그때의 분한 마음이 갑절로 된 것이다. “병즈년 이원슈을 어느날 갑

119) <연행가> p. 470.

120) 청석령 지나거나 초하구 | 어드매오 / 호풍도 춤도 출샤 구진비는 브슴일고
/ 뉘라셔 내 형식 그려내여 넘겨신디 드릴고 (봉림대군 作 <청구영언>)

121) <북행가> p. 126.

122) <연행가> p. 476.

하보니”라며 분한 마음이 이제 반청의식으로까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듯 홍순학의 나라에 대한 충성심의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역사의식은 이후 작가의 송명사상과 반청사상으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홍순학의 역사의식과 대명·대청관 및 대서양관은 연장선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대국애의 흠모와 송명사상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는 연행에의 바람은 그 안에 중국은 대국이라는 중화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비록 중국이 명에서 청으로 바뀌어 반청사상이 확산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조선의 사대부들에 흠모의 대상이었다¹²³⁾.

노동별 칠빅니가 호호망망 터져시니 / 지세가 평포하여 산하나히 아니된다 / …… / 저러듯 광활세계 평성의 처음보니 / 디장부 닐분막음 저러듯 활여하고 / 영웅의 큰괴운은 이러듯 패허리라¹²⁴⁾

게다가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조선의 좁은 땅에서만 살다가 중원의 넓은 땅을 바라보는 순간 사대부들의 浩然之氣의 모습은 절로 드러나 보이게 된다. 넓은 중국 대륙을 바라보는 순간만큼은 명이나 청과 같은 이념의 세계는 없어지고 만다. 대자연을 바라보며 사대의 이념을 생각하기에는 그 자연의 위대함이 너무 크다. 그저 꿈에서 그리던 대국의 큰 기운만이 작가의 온몸을 휩싸고 있을 뿐이다.

123) 북경의 장관길을 사람마다 원컨마는 / 오날날 너당하니 원할 것 바히업너(<북행가> p. 115).

심중의 나문흔이 강남을 못본지라 / 어느디 이리건너 강남가서 당여볼고(<북행가> p. 153).

124) <연행가> p. 472.

멀니브라 압홀보니 안계도 쾌활홀사 / 뇨동벌 칠빅니와 남히천니 큰바다히 / 일점진의
가리잔코 안역이 부족홀다 / 등티산이 소천하는 넷글의 보아스며 / 화산상 낙안봉은 니
빅을 두렛더니 / 너본디 소국스람 천만의외 오늘날의 / 의수녀산 제일봉은 올라볼줄 뜻
히서라 / 이러툃 조흔곳의 느려갈듯 전혀업니¹²⁵⁾

위의 인용문은 의무여산에 올라서는 ‘登泰山小天下’라는 글귀를 떠올리며 소국 사람으로서 대국의 자연을 앞에 놓고 보니 유가의 전통적 사대부의 이상을 몸으로서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내려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여 그 역시 자연에 살고 싶어하는 강호에의 동경마저 나타나 보이고 있다.

‘대국에의 흠모’는 ‘연행에의 바람’과 마찬가지로 예전부터 사대부라면 누구나 바라던 것으로, 홍순학 역시 19세기 조선을 살고 있는 젊은 사대부로서 전통적 사대부의 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행의 길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인용하여 애국심의 고취에 힘을 썼다면 중국 특히 당나라의 고사 인용은 망국을 그리워하는 승명의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록 지금은 만주족의 청나라지만 아직까지는 명에 대한 관념적 인식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세월이 흘러 19세기 중반이 되었지만, 전통적 사대부의 관념적 성향이 아직까지 젊은 사대부의 머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내려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행가> 속에는 승명사상을 드러내는 인용 고사가 아주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 역시 이전 연행가사에서 채택된 바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홍순학 역시 승명적 사상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굳이 이러한 고사들을 채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大凌河를 지날 때는 그곳에서 大明 때의 유장군을 회상하여 명나라의 병사가 이곳에서 일시에 빠져 죽은 것을 愴憾해 하고 있다¹²⁶⁾. 그리고 嘔血

125) <연행가> p. 480.

126) 더롱하 다다르니 물빛도 적탁홀며 / 풍세는 위름홀여 흥흥홀 물결이라 / 슬푸다 더명적의 유장군 수십만명 / 일시의 함물홀여 이물의 썩저짜니 / 막춤이 리 지날적의 엇지아니 창감홀라(<연행가> p. 480).

臺에서 명나라 장군 원숭환이 청병을 맞아 싸우던 고사와 함께 누르하치가 피를 토한 곳이라 말하고 있다¹²⁷⁾. 이는 지금이 淸朝임에도 불구하고 명의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을 인용하여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숭명사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¹²⁸⁾.

영원성너 드러가니 조가의 두피루가 / 의의히 마조잇셔 저러툇 장호도다 / 드러니 대명
 썩의 영원빅 조더슈가 / 형대세록 지선으로 변방의 공세우미 / 나라의셔 정문흐샤 피루
 들을 세우시고 / 튕열을 포흐시니 편리국은 호엿시디 / 무도흔 조가형대 그후의 비반호
 여 / 청나라히 투항호니 붓그럽다 저피루여 / 괴교흔 저피루는 의연이 남아있다¹²⁹⁾

위의 인용문에서는 寧遠城에서 朝家 형제의 두 牌樓에 관한 고사를 말하고 있다. 大明 적에 공을 세운 조가 형제에게 나라에서는 旌門하여 牌樓까지 세워주었는데 無道하게도 명나라의 은혜를 저버리고 청나라에 투항하니 두 패루만 의연히 남아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아래와 같이 명을 반역한 오삼계의 이야기¹³⁰⁾나 청에 반항하는 과부 송씨의 이야기¹³¹⁾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청의 입장이 아닌 명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¹³²⁾. 이 장면

127) 구혈디라 호는보회 쌍석성서 쳐다빈다 / 디명장 원숭환이가 청병을 디첩호디 / 느라지 도라나라 피토히던 곳이라네(<연행가> p. 480).

128) 이러한 숭명의식의 모습은 <서행록>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리고 <서행록> 역시 이전 연행가사들의 대명의식을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작품의 시기적 선후 관계를 볼 때, 홍순환이 예전 연행자들이 가졌던 대명의식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129) <연행가> p. 482.

130) 산허관 드러가니 / …… / 요히쳐 등진이라 / 호물며 성첩괴셔 비포가 견고호너 / 일부당관 만부묵기 네르두고 일너스나 / 그형세르 밋들마라 넷일이 비감호다 / 만고역신 오삼계가 성호편 여러노코 / 한니을 불너드러 디명운수 진힉스니(<연행가> p. 484).

131) 계조산 지나갈셔 과부성이 잇짜호니 / 넷적의 송과부가 누거만지 거부로서 / 스스로이 성을싸고 삼총포루 놓피지어 / 도적을 방비호고 디더로 계거호니 / 즈손이 번성호여 여러송시 명문거족 / 잔성을 굿게직혀 청나라의 불복호니 / 혼조각 외로운성 디명천지 나맛고나 / 강희황대 밋게여져 힉마다 만금석을 / 별전으로 속공호여 자우금 부친다네(<연행가> p. 486).

132) 조가 형제와 오삼계가 명나라에 있어서의 비록 역적이지만 청나라에 있어서는 영웅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새로운 청나라에 반항하는 과부 송씨의 성은 언

들은 명을 배반하고 청에 투항한 인물이나 명을 저버리고 못하고 청에 투항하는 인물들을 내세워 승명사상을 나타냄과 동시에 나라에 대한 충성까지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청에 대한 반감이 수그러들었다면 이러한 고사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명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남아있던 터라 작가는 명을 배신했던 무리들을 역적으로 간주하는 고사들을 여전히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산각이 어디메오 넷일이 시로왜라 / 갑신삼월 십구일의 승정황제 순절터라 / 세리지회 그음업셔 다시꿈 바라보니 / 창오산 저문구름 지금의 유유흥고 / 상원의 누은버들 어느썩 일어느리¹³³⁾

위의 인용문은 매산각에서 殉節한 순정황제의 고사로, 지금까지 이야기 해왔던 승명의식의 끝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망국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원의 누은버들 어느썩 일어느리”하면서, 결국 명나라의 부활마저 꿈꾸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래의 인용문처럼 유인복도 마찬가지이다.

산상의 미산각은 이제까지 완연하니 / 가엽도다 만역황제 궁격지통 저제로다¹³⁴⁾

1636년 병자호란 이후 벌써 230여 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명의 충신을 기리고, 황제를 가엽게 여기며, 망국의 부활까지도 바라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승명사상은 다른 사대부들이나 일반 민중의 대폭적인지지 없이 홍순학 개인만의 것은 아니다. 일부 정계인이나 지식인을 제외하고 아직까지는 만연해 있는 일반 민중의 의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시각으로 바라보는가에 역사적 판단이 달라진다. 사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도 조선 측에서 보면 영웅이지만 고려에서 보자면 반역이요 만고의 역신이 되는 것이다.

133) <연행가> p. 502.

134) <북행가> p. 144.

좋을 것이다.

위와 같은 모습들은 연행가사를 읽는 독자에게 우리가 청에게 당했던 역사적 현실을 기억하게 하여 명과 조선의 역사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며 반청사상으로 나아가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송명사상은 청나라 여인과 명나라 여인의 발 크기의 비교와 청나라에서 벼슬하고 있는 명나라의 후손을 찾아가는 모습 그리고 청나라에서 벼슬을 하고 있는 한족들이 조선 사신들의 복색을 부러워하는 모습 등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발뭇시를 불작시면 수당혀를 신어시며 / 청여는 발이커서 남즈의 발궂트나 / 당여는 발이작아 두치짐 되는거술 / 비단으로 꼭동히고 신뉘축의 굽을달아 / 위득비득 가는모양 너머질가 워터흐다 / 그러타고 웃지마라 명나라 씨친제도 / 저계집의 발훈가지 지금까지 불것있다¹³⁵⁾

당녀는 발을동혀 늡도록 못즈라니 지디여서 섯는 모양 조막손 갖게고나¹³⁶⁾

위의 인용문을 보면 <서행록>에서는 당녀의 발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연행가>에서는 淸女와 唐女의 발을 비교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나 청녀의 발이 상대적으로 큰 이유보다는 전족으로 인하여 기형처럼 작아진 발로 비똥비똥 걷는 여성의 발걸음에서 “명나라 씨친제도 저계집의 발훈가지 지금까지 불것있다”며 명나라의 악습마저도 유풍으로 보고 있는 모습에서 무의식적인 송명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무의식적 송명의식의 모습은 창시놀음을 구경하는 와중에서 배우들이 입고 나온 의상에서 명나라의 의복제도를 회상하기¹³⁷⁾까지도 한다.

135) <연행가> p. 466.

136) <서행록> p. 160.

137) 마잔편 회즈루의 창시노름 맞춤흐다 / …… / 오쇠화관 치식원삼 디디을 길게살며 / 슈미션을 손의들고 마조셔셔 디무흐니 / 디명적 의복제도 저러흐다 일으러라(<연행가> p. 474).

관소로 도라오니 홀일이 보이업니 / 널남고시 강개지스 인걸이나 츠즈리라 / …… / 모
 도다 더명적의 명문거족 후예로서 / 마지못히 삭발하고 호인의게 벼술하나 / 의관의 슈
 통호음 분흔마음 품어고나 / 넷의관 조선스름 형데긋치 변경한다¹³⁸⁾

위는 명나라 때의 명문거족들의 후예를 찾아가 “마지못히 삭발하고 호인
 의게 벼술하나 의관의 슈통호음 분흔마음 품어고나 넷의관 조선스름 형데
 꺾치 변경한다”며 조선의 의관에 명나라의 유풍이 남아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들은 사신들을 부러워하는 할 뿐 아니라 형제처럼 반긴다고 말
 하고 있다. 이러한 승명의 모습은 <서행가>에서 더 잘 나타나고 있다¹³⁹⁾.

왕고부의 강기괴습 우리복식 부러워서 / 나쁜관을 벗겨쓰고 슬픈괴식 현연한다¹⁴⁰⁾

위의 인용문 역시 홍순학이 쓰고 있던 冠을 벗겨 쓰고 슬픈 기색을 하고
 있는 왕공부의 모습에서 조선의 사대부뿐만 아니라 청나라에도 아직까지
 명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명을 배신한 인물과 명을 지키고자 했던 인물, 순정황제의 죽음, 그리고
 망국의 복식을 그리워하는 유민들의 모습과 전족이라는 악습마저 명의 유
 물로 보고있는 작가의 모습에서, 조선의 사대부로서 홍순학이 지닌 승명사
 상은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승명사상은 <연행가> 뿐만 아니라
 다른 연행가사류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는 조선 사대부 지
 식인의 공통된 의식의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이미 대중화 되어있는 승명

138) <연행가> p. 550.

139) 연남 고시의 인걸을 츠즈리라 / 서하연 더은선원 큰선비 잇다하니 / …… /
 우리보고 흠선호여 왕왕이 낙루호며 / 중용히 필담홀제 진정소회 호는말이 /
 그더는 외국이나 텃호의 제일이라 / 지금의 세상스름 저마다 호복인디 / 의관
 을 보존호고 네악이 가갓시니 / 중국의 제로들고 선왕문물 간디업고 / 쏬쥬호
 는 놉흔의리 혼조선 썬이로다(<서행록> p. 242).

여기서는 “그더는 외국이나 텃호의 제일이라”·“쏬쥬호는 놉흔의리 혼조선 썬
 이로다”라는 중국선비의 말을 인용하면서, 명이 사라지고 난 이후 조선만이 중
 화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소중화사상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140) <연행가> p. 558.

사상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

3) 반청사상

이전까지 작가의 대명관을 ‘대국에의 흠모’와 ‘승명사상’의 측면에서 바라 보았다. 이제는 대명관과 동전 양면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작가의 대명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작가의 대명관이 승명이라는 한 가지로 집약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대명관은 작가의 시선에 따라 ‘반청사상의 유지’와 ‘관료로서의 청의 제도와 문물에 대한 관심’이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전자는 부정적인, 후자는 긍정적인 대칭의식을 나타 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청의 발달된 제도나 변화한 모습 등에서 반청적 태도¹⁴¹⁾가 수그러드는 것은 단지 청의 발달된 걸모습에만 해당되는 것이 지, 그들의 문화나 기타의 다른 면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모습이다.

‘반청사상’은 대부분 ‘승명사상의 유지’와 그 맥을 함께 한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승명사상의 모습들은 아직까지 반청사상이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계속되는 승명반청 사상 속에서도 홍순학은 청의 발달된 문물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선진대국의 모습에서 비교적 객관적인 시선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는 것은, 그가 관료로서 연행에 임했기 때문에 연행 대상 국가인 청에 대해 자세한 관찰을 하기 위함이기도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이 오락케임을 알면서도 발달된 제도나 문물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조선의 낙후된 현실과 비교·대조해 가며 배울 점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다.

141) 이달올손 요동들이 일축국 호야와서 / 갓득의 적은조선 복원이 바히주니 / 언체나 시운도라 턱디를 멀니호고 / 불연즉 진턴즈가 스희를 통일호야 / 중국을 정돈호고 성진을 정히쓸어 / 만국이 일가되여 저허를 높히고저(<서행록> p. 152).

‘眞天子가 四海를 통일하고 중국을 정돈’해야한다는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직까지는 청에 대한 깊은 반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밭씨을 기다려서 칩문으로 향헝가니 / …… / 녹창쥬 여염들은 오식이 영농헝고 / 화스
 치란 시정들은 만물이 변화헝다 / 짐집이 호인들은 길의나와 구경헝니 / 의복기 괴려헝
 여 처음보기 놀납도다¹⁴²⁾

처음 중국 땅에 도착하여 책문에 들어섰을 때 홍순학은 화려한 시정의 모습과 변화함에 놀라지만, 처음 보는 호인에 대해서는 “의복기 괴려헝여 처음보기 놀납도다”라고 하여 부정적인 시선을 감추지는 않는다. 대신 호인들의 인물 묘사에 대해서는 멸시적인 지칭어나 비속어의 사용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객관적 묘사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머리는 압홀싸가 뒤만싸헝 느리쳐서 / 당스실노 당괴헝고 말익이을 놀렸쓰며 / 거문빗
 저구리는 깃업시 지어쓰되 / 웃고름은 아니달고 단초다라 입어쓰며 / 아청바지 반물속
 것 허리띠로 놀러띠고 / 두다리의 형견모양 타오구라 일흠헝여 / 회목의 오금까지 회떡
 헝게 드리끼고 / 깃업슨 청두루막기 단초가 여러히요 / 좁은스미 손등떡혀 손이겨오 드
 나들고 / 공방디 옥물뿌리 담빈너는 쥬머니의 / 부시까지 써셔들고 뒤짐지기 버릇시라
 / 스람마다 그모양니 천만인이 한빛라¹⁴³⁾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히려 관료로서의 청의 제도와 문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나라의 일반 백성들의 의식주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풍습까지 있는 그대로 묘사하면서 칭찬할 것은 칭찬하여 객관적 시각의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캉’이라는 집제도¹⁴⁴⁾를 우리나라의 부뚜막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일반 서민들의 식생활의 모습¹⁴⁵⁾과 강보에 싸서 아이

142) <연행가> p. 462.

143) <연행가> p. 464.

144) 하쳐라고 초즈가니 집제도가 우습도다 / 오랑각 이간반의 벽돌을 곱게깔고 / 반간식 캉을지어 좌우로 디캉헝니 / 캉모양 엇더터나 강제도를 못보거든 / 우리나라 붓두막이 그와거의 흠스헝여 / 그밋히 구들노하 불을써게 마련헝고 / 그우히 조리띠고 밤이면 누어즈며 / 낮이면 손님접디 걸터얏기 가장조코 / 최우헝은 완즈창과 면회헝은 벽돌담은 / 미천헝 호인들도 집치레 과람코나(<연행가> p. 466).

145) 썩업시 먹느밧은 기장좁살 슈슈쫄을 / 녹난하게 술마니여 닝슈의 처워두고 /

를 기르는 풍습¹⁴⁶⁾ 등을 묘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천한 호인들도 짐치레 과람코나”라고 하여, 호인들이 잘 사는 것을 사치하는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궁핍한 자국의 현실을 위로하는 모습마저 엿볼 수 있다.

호인의 풍속들이 증상치기 숭상호여 / …… / 농사호기 길삼호기 브즈런이 위엿한다 /
 짐집이 더문압혀 뽕흔거름 티산궤고 / 논은업고 밭만잇서 온갓곡석 다심운다 / 나귀말
 괴 장기매여 소업셔도 능히갈며 / 흙의조로 길게호여 기음미기 셔셔한다 / 뵈아질의 굴
 네질과 꾸리것는 계집이라 / 도토마리 달을밀제 풀칠안코 잘들호며 / 뵈틀이라 호는거
 슌 경첩호고 지치있다 / 쇠꼬리가 아니라도 잉아능녹 어렵잔코 / 북을지어 더지며는 바
 디질은 절노할스¹⁴⁷⁾

위의 인용문과 같이 짐승치기를 숭상하고 농사짓기에 힘쓰며 길쌈하기에 부지런한 호인들의 모습에서, 홍순학은 조선의 일반백성들에게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국 백성들의 삶의 묘사는 조선의 일반 백성들을 포함한 가사의 독자층에게도 크게 관심의 대상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점점 청나라 깊숙이 들어가면서 홍순학은 청의 발달된 문물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청나라 처음도읍 봉천부 경경이라 / 니외성 고분성의 성문이 여덩이오 / 길가의 시정들
 은 좌우로 년니여서 / 전마다 띠를세워 푸른뵈 불근뵈로 / 무엇무엇 띠라호고 금조로 삭
 여시니 / 물건이 풍비호여 업는거시 업다호네 / 십즈가 네거리의 이층집 스문통이 / 거
 리거리 높히잇서 변화호고 웅위호다 / 오느스릅 가는스슴 거마가 미만호여 / 정신이 이

진귀는 다썩져서 아모맛또 업는거슴 / 남너노소 식구더로 부모형데 처조전속 /
 한상의 뵈너안져 혼그릇식 밥을썩져서 / 저짜치로 그리먹고 낮부면 더썩온다 /
 반찬이라 호는거슴 돛히기름 날파나물 / 큰독의 담은장은 소금물의 떠썩너코 /
 날마다 갓금갓금 막더로 휘져호니 / 죽궤튼 된장물을 장이라고 썩다먹디(<연행
 가> p. 468).

146) 어린아희 길은범은 풍속이 괴상호다 / 형담의 줄을밧여 그니미듯 축혀달고 /
 우논아희 것먹여서 강보의 뭉둥그려 / 형담속의 누여주고 줄을잡아 흔들며은 /
 아모소리 아니호고 보쳐논일 업다호네(<연행가> p. 470).

147) <연행가> p. 468.

특하여 향방을 못홀너라¹⁴⁸⁾

위 인용문을 보면 풍부한 물건과 화려한 건물로 가득찬 성경의 변화함에 정신을 잃을 정도이다. 이 역시 <서행록>과 <북행가>에서도 마찬가지¹⁴⁹⁾이다.

통주경너 들어가서 야시을 구경하자 / 길가의 시전들은 좌우로 여럿는다 / 밤의도 닷지 안코 전마다 양각등의 / 큰초의 불을혀서 년궁십니 하여시니 / 광치의 조요홈이 낮이나 다름업다¹⁵⁰⁾

통주 夜市의 시전들이 양각등을 밝히고 있는 모습에서 “광치의 조요홈이 낮이나 다름업다”고 하며 근대문물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

넉관군관 뒤쓰르와 티평츠을 모르가니 / 티평츠라 흐는거슨 빵박회 수티우히 / 장독교 제도로다 좌우스창 익낭달고 / 거문빋 긴츠앙을 압흐로 빗테이오 / 압치을 길게하여 조 혼노식 메여노코 / 압히안즌 간츠지눔 긴치죽 혼번더져 / 유에유에 혼소터의 풍우궂치 썩르고나¹⁵¹⁾

태평차라는 새로운 기구에 대해 “풍우궂치 썩르고나”라고 칭찬하며 그 모습을 묘사하듯이 보여주고 있다. 유인목은 차가 뒤집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차 타기를 경계하라¹⁵²⁾고 말하고 있어, ‘車’ 제도의 장단점이 두 작품을

148) <연행가> p. 474.

149) 요동성 드러가니 봉황성 십빈되고 / 아경의 비기건터 곳곳의 초견이니 / 언경의 드러가면 망양지탄 응당이라 / 말타고 지나가니 요지경 드러간지 / 좌우의 탈목하며 유리금은 조요하니 / 고루흔 소국인물 촌계의 관청인 듯(<서행록> p. 160).

요동성중 드러가니 변화를 말홀소냐 / 너분디 정저와라 소견이 크다하라 / 전방압 슈장목은 금즈로 식겨잇고 / …… / 그나마 허다장관 일일이 다홀소냐(<북행가> p. 129).

150) <연행가> p. 488.

151) <연행가> p. 492.

통해 서로 잘 드러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나라에 대한 홍순학의 시각은 여전히 반청적인 의식이 깔려 있기는 하지만, 작가 자신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중국의 발달상에 놀라고 19세기 후반이라는 근대적 흐름에 늦으나마 발맞춤 하려하는 긍정적 시각의 표현 역시 주목되어진다.

II장의 2단락에서 살펴보았던 대명대청론 변화의 흐름 속에서 홍순학은 <연행가>를 통하여 그의 대외관을 소신껏 밝히고 있다. 아직까지 승명반청적 사상이 그의 대외관 속에서 흐르고 있으나, 관료로서 청의 제도와 문물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세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전자가 이제껏 전통적 사대부들의 의식이나 일반 민중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면, 후자는 좀 더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조선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젊은 사대부 지식인의 가능성을 비춰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4) 부정적 대서양관

<연행가> 내에서 승명·반청사상이 지속적 유지와 청 선진 문물에 대한 작가의 관심이 생겨난 데 반하여, 서양에 대한 시선은 지극히 부정적이다. 홍순학이 <연행가> 내에서 서양에 대해 쓴 것은 몇 부분이 되지 않지만 그 시선만큼은 지극히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청이 서양에게 당했던 고사까지 인용하며, 그 화가 언제 조선에 닥칠지 모르는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각심스가 어더메나 그리로 향히가즈 / …… / 서산의 조탄흙은 드런지 오러더니 / 신미
연 서양국놈 거괴와서 작변하여 / 앓가온 히전더겔 몇천만간 조흔집을 / 모도다 불을노
하 일망무제 터뿐이니 / 보기의 슈참하여 광식이 빨빨하다¹⁵³⁾

152) 편견갓치 가는츠가 횡두루쳐 되쳐지며 / 김각의 썬러지니 기스즈성 도여고야 / 정신을 슈습하여 츠탈마음 전혀업니 / 스람들은 경계호소 츠타기를 경계호소 (<북행가> p. 156).

153) <연행가> p. 536.

서산구경 다흔후의 가마니 생각하니 / …… / 신뉴년 회류이후 오히려 저러커든 / 그전의 전경시야 오죽히 장홀소냐 / 천하지물 허비히고 빅성인역 궁진호여 / 쓸디업슨 궁스 극치 이거시 무삼듯고 / 진시황의 아방궁은 천하로 직양나니 / 전감이 소소호여 천이가 맛당토다¹⁵⁴⁾

위의 두 인용문은 모두 화려하고 번성한 중국의 문물들이 서양국의 작변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조선에도 이런 일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안감에서 나온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오랑캐의 나라이지만 선진대국이라 믿어왔던 청나라마저 대항하기가 어려움을 보고작가는 서양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세를 가지게 한다.

그러나 미지의 불안감으로만 여겨졌던 이러한 생각들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을 때 서양에 대한 시각은 지극히 부정적인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

황낭등의 필담으로 비밀이 이른말이 / 근일의 양귀즈놈 귀국을 침노운운 / 네부상셔 즈문으로 묻져급보 호엿느니 / 존형은 아모조록 썰이도라 같지어다 / 이말이 어인말고 디경실식 놀라운듬 / 감격홀시 황낭등을 무수히 스투호고 / 인호여 작별하니 초성의 활별이라 / 도라오며 생각하니 양귀즈놈 통분코나¹⁵⁵⁾

위에서 황낭중이 “근일의 양귀즈놈 귀국을 침노운운”이라는 말해 주자 무수히 감사를 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순학의 눈에 보이는 양귀자 놈들이 이쁘게 보일 리 없다.

황성안을 심각히도 서양관이 여러히오 / 처처의 천쥬광과 스흫편만 호엿다며 / 큰길의 양귀즈들 무상이 왕니호네 / 눈쌀은 움숫호고 코마루는 웃둑호며 / 머리털은 발간거시 굵실굵실 양피갓고 / 키솔은 팔척장신 의복도 고이호다 / 쓴거손 무어신지 못둑흔 전님 갖고 / 입은거손 어이호야 두다리가 평평호냐 / 계집년을 불작시면 더구나 흥피코나 / 통통호고 커다흔년 살쌀은 푸루죽죽 / 머리천의 꺾튼거솔 뒤로길게 느려쓰고 / 슝미좁

154) <연행가> p. 542.

155) <연행가> p. 558.

은 저구리의 류름업는 긴치마을 / 엉베히여 휘두루고 혜적혜적 가느고나 / 샷기놈들 불
만흔다 스오늑세 먹은거시 / 답팔답팔 발간머리 시노란 동근눈쌀 / 원슴이 샷기들과 천
연이도 흙스홀사 / 정녕이 증성이오 사롭퐁자 아니로다 / 저리툏 슨람요물 침노아국 되
단말가¹⁵⁶⁾

그러한 시각에서 바라 본 황성 안에는 위와 같이 이미 서양관이며 천주
관이 처처에서 발견되고 邪學이 가득 차 있었으며, 양귀자들이 무수히 왕
래하고 있었다. 양귀자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 홍순학의 시선으로 쓰여진 <
연행가>에서 서양인에 대한 그의 시각이 철저히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이는 다른 연행자들의 눈에도 마찬가지였
다¹⁵⁷⁾.

비록 <연행가> 중에서도 극히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홍순학을 포
함하여 이 시대 조선 사대부들이 아직까지는 서양에 대해 객관적 직시는
유보한 채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56) <연행가> p. 558.

157) 상이 이르기를, “중원에 있는 서양인의 습속은 어떠하던가?” 하니, 유후조가
아뢰기를, “서양인은 통제를 받지 않아서 예전에 없던 행동을 자행함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서양인들이 과연 대국을 두려워하지
않던가?” 하니, 유후조가 아뢰기를, “조선관이 도성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
는데 항상 서양 오랑캐들이 그 처자를 데리고 아무 두려움 없이 성에 오르며
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개 중국의 법에는 성에 오르는 사람은 처벌하여 절
대로 용서해 주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서양인들이 마음대로 출입하여도 막지
못하니, 저들의 방자하여 거리낌이 없는 것을 이를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하
였다. 또 아뢰기를, “서양 오랑캐들이 비록 교활하지만 邪道가 正道를 이길 수
없는 법이니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송정원일
기』 고종 5, 민족문화추진회, 1994).

IV. <연행가>의 역사적 성격과 문학사적 의의

1. <연행가>의 역사적 성격

1866년(고종3) 젊은 선비 홍순학은 進賀謝恩 兼 嘉禮冊封奏請使의 서장관으로 청나라를 다녀왔다. 그 먼 사행의 길을 오가면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가사 양식을 이용하여 <연행가>라는 작품을 지어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행가>는 작가 홍순학 개인만의 작품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문학이건 비문학이건 어떠한 종류의 언어조직체라도 그 언어조직체를 산출한 사회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든 반영하기 마련이다. 사회의 정신적 분위기·문화적 취향 그리고 당대의 온갖 사회적 정황이 온전한 모습으로 언표되기도 하고 혹은 어느 정도 굴절된 모습으로 표출되기도 하는 것이다¹⁵⁸⁾.

한 개인의 문학 작품은 그가 살고 있던 19세기 후반이라는 조선 사회의 온갖 다양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연행가>는 홍순학이 속해 있는 사대부 계층의 사상적 측면의 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전기까지의 대명관계가 명분론적인 것이었다면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실질적 互惠關係임이 확인되었고, 이로써 조선 지식인의 존명적 태도는 더욱 확고한 정당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병자호란을 거치고 명이 청에게 멸망당함으로써 조선 사대부들은 명을 관념적인 승명사상 뿐만 아니라 소중화사상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 주도적 정치집단이었던 노론 지식인들의 대명의리론은 조선문화 자존의식·반청적 북벌대의론과 결합되었고,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공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서도 북벌

158) 김현주, 『관소리 담화분석』, 좋은날 인문사회총서, 1988, pp. 248~249.

의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청의 중원지배를 받아들이자는 현실론을 주장했던 소론계 일부 지식인들도 있었다.

18세기로 와서 북벌대의론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으나 대명의리론의 전반적인 추세를 주도한 것은 역시 노론계의 생각이었다. 이 단계에는 소중화에서 더 나아가 조선중화의식으로 발전하였고, 명은 중화문화의 상징으로서 관념화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세의 흐름 속에서도 비록 노론계통이지만 홍대용과 박지원처럼 대명의리론을 근본적으로 회의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조선문물을 청문물과 비교하여 객관화시킴으로서 조선의 문화자존의식을 반성하는 면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노론의 북벌대의론과 대립되는 북학론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19세기 이후 조선 사상계에서 북학론이 중앙정계의 대세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洛論의 흥지필과 같이 대명의리론을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말하자면 19세기 이후 중앙 정계에 소수의 북학파를 제외하면 그 외곽에는 위정척사론을 주장하던 보수적 산림들이 관념화된 숭명사상을 내세우며 북벌대의론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현실 속에서 III장의 2단락에서 보여주고 있는 홍순학의 대내외관 특히,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숭명반청 의식은 작가 개인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의식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대명대청사상이 많이 변하기는 하였어도 그것은 정치·사상계의 일부 인사들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정계 외곽에 자리잡고 있는 사대부들이나 일반 민중들에게는 여전히 반청의식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한 예로 1824년에 지어진 조우각의 <大明復讐歌>¹⁵⁹⁾를 들 수 있겠다. 이는 명의 쇠망을 비탄할 뿐만 아니라 청이 끼친 민족적 치욕과 한을

159) 이상보, 「대명복수가 해제」, 『고문연구』 6, 한국고문연구회, 1994.

『역대 가사문학전집』 51 총색인(임기중 편, 아세아문화사, 1999.)의 색인에서 찾아본 <대명복수가>는 다음 표와 같다.

격렬한 언어로 노래하던서, 媾和臣을 강렬히 痛擊하고 중국과 우리나라 역대의 충의열사를 모두 불러모아 대명 황실을 회복하고 병자년의 城下盟을 雪恥하고자 하는 것을 노래한 것이다¹⁶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작품의 내용만이 아니다. 바로 이 <대명복수가>의 분포상황이다. 가사의 독자층이 사대부 남성에서 사대부 여성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 중의 한 예로 규방가사를 들어 보자. 홍재휴에 의하면, “대명복수는 지금까지 드러난 자료로 보아 주로 영천을 중심한 경북 일원에 轉傳하여 애송되던 가사로서 특히 永川지방의 古老들이나 부녀자들은 이를 암송하는 이도 있음으로 보아 독자의 대상이 무척 넓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¹⁶¹).

지역	가사분포개수	대명복수가
奉化	92개	대명복수가(1종)
榮州	80개	대명복수가(1종)
義城	108개	대명복수가(1종)
盈德	154개	대명복수가(1종)
星州	260개	대명복수가(2종) 그 외 대명복수상(1종), 대명열하가라(1종)
大邱	99개	대명복수가(1종)
慶州	58개	대명복수가(1종)
永川	118개	대명복수가(2종)

위의 표에서 보듯 <대명복수가>가 널리 퍼져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독자들의 호응이 좋고 널리 읽혔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가사가 널리

권	번호	작품명	지은이	지은때	출판/참고문헌/소장처
23	1142	대명복수가			가사집 (임/필)
36	1365	大明復讐歌	趙友巖	1824	蒼軒集
36	1634	大明復讐歌永川趙友巖撰	趙友巖	1824	蒼軒集

160) 홍재휴, 「창헌 조우각의 대명복수가·천군복위가 고」, 『행정이상헌선생 회갑 기념논문집』, 형설출판사, 1968, p. 546.

161) 홍재휴, 위의 논문, 1968, pp. 77~92.

읽힌 만큼 거기에 담고 있는 승명반청 사상도 대중들에게 널리 퍼져나가 있었고 인기가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다수의 민중 의식이 이렇진대 홍순학 역시 이런 승명반청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것이 작품 <연행가>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도 쉽게 예상된다. 왜냐하면, 가사의 작가는 가사의 독자이므로 그 역시 이러한 대중적 의식을 자신의 개인적 의식 속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의 연장선 위에 대서양의식도 함께 하고 있다.

하지만, 작가는 젊은 사대부 지식인이다. 이러한 민중적이고 대중적인 의식도 가지고 있지만 역시 새로운 시대로의 발걸음도 느리나마 나아가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대청의식 중에서도 ‘관료로서 청의 제도와 문물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다. 비록 반청사상은 뼈저리게 간직하고 있지만 시대의 상황이 이러한 전근대적인 사상에 머무를 수만은 없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청나라에서 눈으로 목도한 사실들은 그가 생각해왔던 그런 오랑캐만의 것은 아니었다. 지금의 조선에 비해 훨씬 발달된 사회와 문명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고 조선의 현실과 비교해 보기도 한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청은 결코 예전의 오랑캐가 아님을 깨닫고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으로서까지 인식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해 주고 있다. 비록 미래에 대한 비전의 제시는 못하고 있지만 아직 젊은 작가의 나이와 그 장래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경험은 결코 인생에 있어 두 번 겪지 못할 기회임에는 틀림이 없다.

2. <연행가>의 문학사적 의의

조선의 사대부들을 예부터 여행이나 기행을 동경해 왔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교통도 좋지 않고 사회적으로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것을 생각하면 일반 평민들은 이러한 사치를 누릴 형편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

러한 여행은 사대부들만의 특권이기도 했다. 하지만 사대부들마저도 평생에 한 두 번 경험해 볼 수 있을까 싶은 것이 여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하게 된 사대부들은 자신의 소중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여행기록들을 남기기도 했다. 국내의 여행의 경우도 이렇진대 하물며 외국의 경우는 어떨지 우리는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작가가 자신의 경험담을 알려주려 하는 대상이 사대부들이라면 한문의 기록을 남겼을 것이고 일반 민중이나 부녀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 때는 거의 반드시 가사의 형식을 빌었다. 이렇게 하여 생겨난 것이 오늘날 가사의 한 종류로 분류되고 있는 기행가사¹⁶²⁾이며, 그 중의 한 부류가 연행가사이다.

<연행가>는 홍순학이 청나라의 수도 연경을 다녀와서 지은 연행가사이다. 연행가사라는 연행과 가사가 합쳐진 말이다. 그래서 <연행가>의 문학사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할 때에도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전자는 연행록의 전통 하에서 살펴보는 것이고, 후자는 가사의 전통 하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조선 숙종 때 간행된 『通文館志』의 赴京使行에 대한 기록만 보더라도, 병자호란(인조14년) 이후 250여 년 동안 사신 행차의 일원으로 청나라의 연경에 다녀 온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국초에 해마다 京師에 조공하는 사신을 보내었는데, 冬至使·正朝使·聖節使·千秋使의 사절행이 있었고, 謝恩使·奏請使·進賀使·陳慰使·進香使 등의 사행은 일이 있을 때마다 임명하여 보냈다. …… 이에 삼절사와 세폐사를 아울러 하나의 사행으로 만들고, 반드시 정사·부사·서장관 3원을 갖추어 이름을 ‘동지사’라고 붙이어서 해마다 한 차례만 사신을 보냈다. 그밖에 일이 있을 때에 보내는 사신은 모두 옛날과 같았는데, 사신은 모두 품계가 있는 당상관이었고, 그 이하는 모두 정해진 정원이 있었다. 그

162) 기행가사는 가사의 관습적 틀을 빌어 행해지는 일련의 자연 공간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라고 하겠다. 이는 바로 조선시대를 관류하는 유교 사대부의 교양적 수준과 심미적 안목을 결합시키는 구체적인 창작 작업이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보편적 세계관에 결박되어 있는 관습적 보편성까지 보여준다(이태문, 「조선조 기행가사의 갈래론적 접근-존재양상과 대응태도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3, 동양고전학회, 1994, pp. 350~351).

러나 그 예부에 보고하는 단자에는 節行과 別行을 따지지 아니하고 일일이 계산하는데, 정사 2원, 서장관 1원, 대통관 3원, 압물관 24원으로, 모두 정관 30원이 冠帶하고 朝謁한다.¹⁶³⁾

이들이 조선으로 돌아와서 지은 한문기록인 연행록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도 100여종이 넘는다. 이처럼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 온 연행록의 전통 속에서 대표적 작품으로는 1712년 老稼齋 金昌業(1658~1721)의 『老稼齋燕行日記』¹⁶⁴⁾, 1765년 湛軒 洪大容(1731~1783)의 『湛軒燕記』¹⁶⁵⁾, 1778년 李德懋의 『入燕記』, 1780년 燕巖 朴趾源(1737~1805)의 『熱河日記』¹⁶⁶⁾, 1790년과 柳得恭의 『溟陽錄』과 徐浩修의 『燕行記』, 1801년 柳得恭의 『燕臺再遊錄』 그리고 마지막으로 1832년 金景善의 『燕轅直指』 등을 꼽을 수 있겠다. 그 중 『老稼齋燕行日記』와 『湛軒燕記』 그리고 『熱河日記』는 가장 뛰어난 연행록으로 손꼽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연행자들에게 있어 연행의 지침서가 되고 있다.

수많은 연행록 중에서 『열하일기』만 보더라도, 대화 중심의 극적인 장면 묘사와 유기적인 구성을 추구하는 소설적 수법, 그리고 白話體와 古文體를 망라하는 다양한 문체들의 구사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문학사적 의의는 지대하다. 뿐만 아니라 청의 현실에 대한 연암의 심오한 통찰과 그의 실학정신에 입각한 혁신적인 경제책·진보적인 천문학설·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세계관 등은 이후 연행록이나 연행가사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즉 연암의

163) 『국역 통문관지』, 앞의 책, p. 100.

164) 이는 1712년(숙종38년) 金昌業이 친형인 동지겸사은정사 金昌集의 자제군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오면서, 그 해 11월 3일부터 이듬해 3월 30일까지 5개월 간의 기록을 일기로 쓴 것이다. 이는 이후 연행록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어 후대의 연행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5) 이는 담헌 홍대용이 그의 숙부 洪櫨이 삼절연공겸사은사의 서장관으로 연행할 때 자제군관으로 그를 수행하여 견문한 바를 주제별로 기술한 것이다. 또한 날짜별로 기술한 국문본 『乙丙燕行錄』도 있다.

166) 이는 1780년(정조4년) 사신이었던 從兄 朴明源의 수행으로 청나라 乾隆帝의 萬壽節을 進賀하기 위해 燕京·熱河 등지에 가서 4개월 간 돌아보며 겪은 일·문인 및 명사들과 교류하면서 느낀 일·문물제도 등을 기록한 기행문이다.

『열하일기』를 정점으로 하여 비록 연행록의 전통은 계속되어오고 있지만 그 내용면이나 사상면에서는 오히려 제자리걸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행가> 역시 이러한 연행록의 전통을 가사라는 방식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연암이 『열하일기』에서 보여준 선진적이고 개혁적이며 근대적인 현실인식과 세계관에 비한다면, 홍순학이 <연행가>에서 보이고 있는 역사의식이나 대외관적 측면은 상당 부분 이전 연행자료들의 내용을 답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 할 수 있겠다.

사대부들이 여행이나 기행 후에 가사를 쓰는 것은 1556년 백광홍의 <관서별곡>을 시작으로 하여 1580년 정철의 <관동별곡>, 1617년 경 조우인의 <출새곡>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때, 기행가사의 전통은 현재 남아있는 기행가사의 자료만 보더라도 최소한 16세기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연행가사만 하더라도 그 시작은 1694년 유명천의 <연행별곡>이다.

조선 중·후기를 거쳐 이어져 내려온 이러한 가사 쓰기의 전통은 19세기 후반에 오게 되면 작가 홍순학 가문의 연행 전통과 만나게 된다. 그 교차하는 점에서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이 <연행가>라는 작품이 아닌가 보여진다.

Ⅲ장에서 잠깐 이야기한 바 있듯이 <연행가>는 김지수의 <서행록>과 그 문장이 일치하는 구절이 많다. 그 중 몇 개만 살펴보자.

① 갈터꽃 물가호로 기러기 떼로느니 / 저기러기 먼저가서 우리집 지나거든 / 나 오날
떠나온다 소식이나 전히주렴¹⁶⁷⁾

들빚춘 소조하고 기러기 떼로나니 / 저기러기 먼저가서 우리집 지는거든 / 나오늘 길떠
난다 소식이나 전히려문¹⁶⁸⁾

② 찬물식어 오난편의 집편지 붓쳐오니 / 스오삭 막헌소식 도로혀 접이난다 / 근향의

167) <연행가> p. 562.

168) <서행록> p. 272.

정기검은 넷글귀가 뿔진홀손 / 스오삭 막힌소식 무슴소식 잇슬넌지 / 죠릿죠릿 못보겐
 니 단단이 마음먹고 / 피봉을 언듯보니 형혈평즈 죠홀시고 / 거룩하다 평을평즈 천만금
 이 너모쌌다 / 이한즈만 보오셔도 적이 위회되며 / 츠츠로 썬허보니 윈지반 편지로다 /
 반가울스 우리노친 안녕호신 친필이오 / 깃부도다 우리병쳐 무양호운 전출이라 / 이제
 야 막음노히 입이절노 버는도다 / 일행이 서로무러 치호가 분분하다¹⁶⁹⁾

군노선니 드리와셔 집편지 붓쳐오니 / 말우회셔 바다들고 조릿조릿 못보겐니 / 근향의
 정 김검호야 불감문 너인은 / 옛스름 지은글이 뿔진하고 간절홀손 / 요룩산 막힌괴별 무
 슴말이 드렸는지 / 슈십니를 다오도록 단단이 마음먹고 / 관음보솔 번듯보니 평홀평즈
 비점이라 / 거룩하다 평홀평즈 천만금이 너무쓰니 / 이흔글즈 보아시니 편지보아 무엇
 호리 / 편지봉은 그저꺾고 덤막의 드리와셔 / 츠츠로 썬허보니 짐스름들 편지로다 / 거
 룩호신 우리노친 평안호신 친필이오 / 형대즈너 무스글시 마노라의 정찰이라 / 이제야
 마음노히 얼시고자 절노난다¹⁷⁰⁾

③ 추팔월 초오일의 칙문을 다다르니 / 오늘은 노친심신 이회가 비로는다 / 의려호심
작호시라 불호호기 그지업다 / 만지장서 호신호셔 권권호신 말슴이라 / 근삼십세 되온
즈식 유치꺾치 아르시니 / 친지 불원유는 넷스람의 교훈이라 / 불회하다 만니밧기 반년
이나 썬느스니 / 붓그럽다 두린마음 돌더가 바히업다¹⁷¹⁾

구월 십오일의 온정들 경야홀제 / 오늘은 노친심신 니회가 비로나니 / 의려호신 김흔심
각 불초호기 가히업다 / 만지장서 호신편지 권권호기 측양업다 / 스식남은 불초즈식 유
치꺾치 아르시며 / 친지의 불원유는 옛스름 교훈이나 / 봉헝치 못호여셔 반년이나 썬나
시니 / 붓그럽고 두린마음 돌더가 바히업다¹⁷²⁾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시기적으로 <서행록>이 이르기 때문에 임기중의 주장처럼 <연행가>가 <서행록>의 영향을 받아 쓰여진 것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¹⁷³⁾. 그러나 예부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함에 있

169) <연행가> p. 564.

170) <서행록> p. 278.

171) <연행가> p. 566.

172) <서행록> p. 279.

173) 연행가사로서 대표작은 <무자서행록>이며 이 작품은 <병인연행가>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연행가사이다. 연행가사는 <무자서행록>에서부터 서사화와 장편화가 이루어졌고 작품 속에서 왕환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하였으며 私家行의 노래가 첨가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병인연행가>의 왕정과 연경에서 각종 풀이는 <무자서행록>과 아주 비슷하여 영향의 수수관계가 보인다(임

어 옛 시인의 시구를 인용하는 예가 많았던 것처럼, 김지수 역시 <서행록>에서 이러한 문구를 처음 창작하여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오히려 이는 <연행별곡>과 <서정별곡> 그 이전부터 그리고 그 이후로 존재했을 많은 연행가사들이 함께 공유했었던 상용구라고 보여진다. 결국은 조선후기의 연행가사가 이전 가사들의 내용을 얼마나 패러디하는데 열심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겠다¹⁷⁴⁾. 이러한 모습에서 <연행가>는 이전 연행가사의 내용을 답습하는,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식적 측면까지도 수용하여 포괄하는 관습지향적인 가사라고 할 수 있겠다.

정리해 보면, 외국으로 사신으로 가는 사대부들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한 기회에 이국에서 보고 들은 바를 기록으로 남기는 전통이 있었다. 물론 한문기록은 가사보다 더 규준과 격식에 맞게 쓰여졌지만 이는 일부의 사대부들에게만 국한된 자료서였을 뿐이다. 좀더 널리 대중에게 알리고 싶은 욕구는 가사라는 장르를 선택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전통과 작가 홍순학의 가문의 연행의 전통이 만나 <연행가>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연행가>는 이전에 있어왔던 연행가사들의 상용어구적인 내용을 인용하면서, 조선후기 관습적 가사문학의 말기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기중, 앞의 책, 2001, p. 26).

174) 청나라에서 문물을 보고 놀라는 모습이나 유리창의 모습 그리고 일반 서민들의 생활 및 풍습 등의 서술에서도 마찬가지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의성어나 의태어의 사용까지 같은 것이 많아서 한 작품만을 보고 배웠을 것이라기 보다, 연행가사 내에서 쓰이는 일반적인 상용구라는 점에 더 확신이 간다.

V. 결론

외국으로 사신으로 가는 사대부들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한 기회에 이국에서 보고 들은 바를 기록으로 남기는 전통이 있었다. 물론, 한문기록은 가사보다 더 규준과 격식에 맞게 쓰여졌지만 이는 일부의 사대부들에게만 국한된 자료서였을 뿐이다. 좀더 널리 대중에게 알리고 싶은 욕구는 가사라는 장르를 선택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전통과 작가 홍순학의 가문의 연행의 전통이 만나 <연행가>를 탄생시켰다. 본고는 이러한 <연행가>에 나타나는 홍순학의 사대부의식과 대외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전 단계로 II장에서는 홍순학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그의 생애에 앞서 남양 홍씨 가문의 전적과 연행간 분들을 정리해 보았다. 여기서 작가의 가문은 일찍이 연행에의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밝혔다. 거기에 19세기 후반이라는 대명·대청관의 변화와 도시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한 작가 등 그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는 <연행가>라는 작품을 통하여 읽어낼 수 있는 모습들로, 작가가 그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III장에서는 <연행가>를 통하여 홍순학의 사대부의식과 대외관을 살펴보았다.

먼저 1단락은 '사대부로서의 자의식과 내면 표출'이라는 제목 아래 홍순학의 사대부의식을 살펴보았다. 홍순학은 연행 관료로서 그리고 문사로서 그 자부심이 굉장했다. 게다가 연행자들에게 제공되는 지공과 기생에 대해 처음에는 어색해하지만 곧 관심을 기울이며 그 문화에 동화되었다. 즉 사대부 특권 계급으로서의 자부심이 그의 작품 前半部에 잘 드러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부모에 대한 깊은 효심과 아내에 대한 걱정과 같은 가족 사랑의 명제들은 가사를 읽는 독자들에게까지도 주자학적 이념에 부합하는 효의 정신을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단락에서는 작가의 역사의식뿐만 아니라 대외관을 살펴보았다.

홍순학은 연행의 길에서 유적지의 고사를 상기하면서 국가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의 대외관은 이러한 역사의식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19세기 후반은 비록 시대적으로는 근대화의 시기였지만, 홍순학은 아직까지 승명반청이라는 대외관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연행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 혼자만의 대외관이 아니라 일부 급진적 정치인을 제외한 일반 사대부들이나 민중들의 보편적인 의식이 있었다. 그리고 이에 연결하여 지극히 부정적인 서양관을 보이고 있다. 시대적 정세는 하루하루 변해가지만,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중화사상으로 인하여 청이나 서양이나 오랑캐라는 인식이 변하지 않고 이어져 오는 것이다.

IV장에서는 <연행가>의 역사적 성격과 문학사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먼저 역사적 성격에서는 <연행가>에 나타나고 있는 승명반청 의식은 작가 개인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의식의 한 모습이라는 것이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대명대청사상이 많이 변하기는 하였어도 그것은 정치·사상계의 일부 인사들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정계 외곽에 자리잡고 있는 사대부들이나 일반 민중들에게는 여전한 반청의식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홍순학은 아직까지 만연해 있는 승명사상에 동조를 하고 이를 <연행가>를 통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으로 사신으로 가는 사대부들은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를 한문으로 남긴 것을 연행록이라 하고 가사라는 장르를 선택하여 남긴 것은 연행가사라 한다. <연행가>는 이러한 연행록의 전통과 가사 쓰기의 전통이 만나는 점에서 남양 홍씨의 가문의 연행의 전통이 더해져 이루어진 작품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 내용적 측면을 보면 다른 연행록이나 연행가사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先연행기록들의 주요 모티브들을 빌려와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전 연행가사들의 상용어구적인 내용들은 거의 표절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용하여 쓰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서 조선후기 관습적 가사문학의 말기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연행가>는 사상적으로는 사대부 계급 그리고 일반 민중의 보편적인 의식을 포함하고, 내용적으로는 이전의 연행록에서 모티브를 가져오고 이전 연행가사들이 사용했던 상용어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조선후기 관습적 가사문학의 말기적 모습’을 보여준다.

조선후기의 대명·대청관은 크게 승명적인 보수세력과 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실학과 2부류로 나뉠 수 있다. 그 중에서 본고는 전자를 사대부를 포함하여 일반 민중의 다수의 보편적 감정으로, 후자를 정계 일부분의 소수 의견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연행가사 중 <연행가>라는 한 작품만을 통해, 이것이 그 시대적 대명·대청관을 대변하는 한 작품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리고 연행기록들 중 『열하일기』에 대한 연구는 이미 한문학 쪽에서 최고 수준에 올라 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에 비해 연행가사들은 그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뒤져있어, 아직까지는 국문문학보다 한문문학에 대한 연구에 더 치중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후에는 연행가사 개개의 작품에 대해서도 더욱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연행가사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보다 깊은 연구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는 미처 다루지 못한 수많은 연행록 자료와의 비교 연구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 고 문 헌

1. 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고종 1~15, 탐구당, 1973.
- 국사편찬위원회, 『동문회고』 1~4, 신지사, 1978.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24-선조32년, 국사편찬위원회, 1979.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43-영조25년, 국사편찬위원회, 1979.
- 국회도서관, 『국조방목』, 1971.
- 남양홍씨 문정공파 중앙총회, 『남양홍씨 문정공파보』 1~12, 남양홍씨문정공파중앙총회, 2001.
- 만성대동보발행소, 『만성대동보』 下, 명문당, 1983.
- 민족문화추진회, 『연행록 선집』 1~12, 민족문화추진회, 1966~67.
-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연행록 선집』 1~12, 민문고, 1989.
-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승정원일기』 고종 1~156, 민족문화추진회, 1994~.
-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고종실록』 이조실록 377~399, 여강출판사, 1993.
- 서울대학교 고전간행회, 『일성록』 고종편 1~44, 서울대 출판부, 1967~72.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 통문관지』 1~4,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태종공정대왕실록』 6,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장현대왕실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임기중 편, 『역대 가사문학전집』 1~10, 동서문화원, 1987.
- 임기중 편, 『역대 가사문학전집』 11~20, 여강출판사, 1988~92.
- 임기중 편, 『역대 가사문학전집』 21~51 아세아문화사, 1992~99.
- 임기중 편, 『연행록 전집』 75, 동국대 출판부, 2001.
- 한국씨족사연구회, 『국역판 한국족보대전』 丁, 도서출판 청화, 1989.
- 한국인명대사전 편찬실, 『한국인명대사전』, 신구문화사, 1976.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인물대사전』 1~2, 중앙M&B, 1999.
- 홍을표, 『남양문헌록』, 남양홍씨 대종중중앙총회, 1975.

2. 단행본

- 강명관, 『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 공간』, 소명출판, 1999.
- 고미숙, 『19세기 시조의 예술사적 의미』, 태학사, 1998.
- 권영철, 『규방가사연구』, 이우사, 1980.

- _____, 『한국시가연구』, 형설출판사, 1981.
- 서원섭, 『가사문학론』, 형설출판사, 1983.
- _____, 『한국가사의 문학적 연구』, 형설출판사, 1995.
- 소재영·김태준, 『여행과 체험의 문학』 중국편, 민족문화문고 간행회, 1985.
- 소재영 외 주해, 『주해 을병연행록』, 태학사, 1997.
- 심재완 교주, 『일동장유가·연행가』 한국고전문학전집 10, 보성문화사, 1978.
- 유연석, 『한국가사문학사』 고전문학연구 16, 국학자료원, 1994.
- 유혜춘, 『장편 서사가사의 연구』, 국학자료원, 1995.
- 이동영, 『가사문학론 고』, 부산대 출판사, 1987.
- 이능우, 『가사문학론』, 일지사, 1977.
- 임기중, 『한국가사문학연구사』, 이회문화사, 1998.
- _____, 『연행가사연구』, 아세아문화사, 2001.
- _____, 『연행록연구』, 일지사, 2002.
- 장택순, 『한국고전문학의 이해』, 일지사, 1976.
- 정기철, 『한국 기행가사의 새로운 조명』, 역락출판사, 2001.
-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2001.
-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1998.
- 정재호, 『한국가사문학론』, 집문당, 1982.
- _____, 편저, 『한국가사문학연구』, 태학사, 1996.
- _____, 『한국 가사문학의 이해』, 고려대 출판부, 1998.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2000.
- 조운제, 『조선시가사강』, 박문출판사, 1937.
- _____, 『조선시가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8.
- 최강현, 『한국 기행문학 연구』, 일지사, 1982.
- _____, 『가사문학론』, 새문사, 1986.
- _____, 『한국 기행문학 작품연구』, 국학자료원, 1996.
- 홍재휴, 『북행가 연구』, 효성여대 출판사, 1991.

3. 학위 논문

- 고순희, 「19세기 현실비판가사연구」, 이화여대 박사 논문, 1990.
- 권선홍, 「조공사해소고」, 한양대 정치학 석사 논문, 1978.
- 권인호, 「한국기행가사 연구」, 국민대 석사 논문, 1990.
- 권혁진, 「연행가 연구」, 연세대 국어교육학 석사 논문, 1970.

-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서울대 박사 논문, 1989.
- 김용섭, 「기행가사 연구」, 건국대 석사 논문, 1981.
- 서원섭, 「가사의 형성과 주제 연구」, 부산대 박사 논문, 1983.
- 서정규, 「사행가사 연구-일동장유가사와 연행가를 중심으로」, 경북대 국어교육학 석사 논문, 1986.
- 성무경, 「가사의 존재양식 연구」, 성균관대 박사 논문, 1997.
- 염은열, 「대상 인식과 내용 생성의 관계에 대한 표현교육론적 연구-기행가사를 중심으로」, 서울대 국어교육학 박사 논문, 1999.
- 원재연, 「조선후기 서양인식의 변천과 대외개방론」, 서울대학교 국사학 박사 논문, 2000.
- 유연석, 「가사문학의 역사적 연구」, 조선대 박사 논문, 1990.
- 유정선, 「18·19세기 기행가사의 작품세계와 시대적 변모양상」, 이화여대 박사 논문, 1999.
- 유해춘, 「장편서사가사의 서술방식과 작가의식 연구」, 경북대 박사 논문, 1993.
- 윤석창, 「가사의 장르적 복합성 연구」, 경희대 박사 논문, 1985.
- 윤성현, 「조선조 후기 가사의 변모양상 연구」, 연세대 석사 논문, 1984.
- 이병철, 「병인연행가 연구」, 경희대 석사 논문, 2001.
- 이성후, 「일동장유가와 일본유람가의 비교 연구」, 계명대 국어교육학 석사 논문, 1981.
- , 「일동장유가 연구」, 효성여대 박사 논문, 1989.
- 이종일, 「조선후기 사대부층의 사회의식-연행록과 해행총재를 중심으로」, 경북대 박사 논문, 1992.
- 이혜전, 「조선후기 가사의 서사성 확대와 그 의미」, 이화여대 석사 논문, 1991.
- 이희승, 「조선후기 일본기행가사 연구-작가의식을 중심으로」, 인천대 국어교육학 석사 논문, 1995.
- 전복규, 「조선후기가사의 근대의식 연구」, 경희대 박사 논문, 1999.
- 정기철, 「기행가사 연구」, 한남대 박사 논문, 1996.
- 정병국, 「차산 유인목의 북행가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 논문, 1999.
- 정옥자, 「조선후기 우문정책과 문학운동」, 서울대 국사학 박사 논문, 1988.
- 정한기, 「기행가사의 진술방식 연구」, 서울대 박사 논문, 2000.
- 조세형, 「가사 장르의 담론 특성 연구」, 서울대 박사 논문, 1998.
- 최강현, 「한국 기행문학 연구-주로 조선시대 기행가사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 논문, 1981.
- 한태문, 「조선후기 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부산대 박사 논문, 1995.

4. 학술지 수록 논문

- 고순희, 「18C 향촌지식인의 선비의식-일동장유가를 통하여」, 『한남어문학』 17-18, 한남대 국어국문학회, 1992.
- _____, 「19세기 장르간 교섭의 한 양상-현실비판가사를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5, 한국고시가학회, 1998.
- 권선홍, 「조선왕조의 대청 조공사절」, 『국제문제논총』 10, 부산외대 국제관계연구소, 1998.
- _____, 「조선시대 중국과의 사대자소관계에 대한 인식」, 『국제문제논총』 11, 부산외대 국제관계연구소, 1999.
- 권영철, 「북행가에 대하여」, 『국문학연구』 5, 효성여대, 1976.
- 김국소, 「기행가사에 대하여」, 『명지어문학』 7, 명지어문학회, 1975.
- _____, 「일동장유가 연구-작가를 중심으로」, 『명지어문학』 8, 명지어문학회, 1976.
- 김대행, 「가사 양식의 문화적 의미」, 『한국시가연구』 3, 한국시가학회, 1998.
- 김도환, 「북학사상과 낙론의 관계」, 『한국학논집』 32,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98.
- 김명호, 「연행록의 전통과 열하일기」, 『한국 한문학연구』, 한국한문학회, 1988.
- 김문식, 「18세기 후반 서울 학인의 청학의식과 청 문물 도입론」, 『규장각』 17, 서울대 규장각, 1994.
- 김성철, 「연행소고」, 『역사학보』 12, 역사학회, 1960.
- 김성철, 「연행소고」, 『여행과 체험의 문학-중국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5.
- 김용철, 「기행가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 가사문학 연구』, 태학사, 1996.
- 김인규, 「조선후기 화이론의 변용과 그 의의-북학파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5, 동양고전학회, 1995.
- 김문식, 「18세기 후반 서울 학인의 청학의식과 청 문물 도입론」, 『규장각』 17, 1994.
- 김주환, 「연행록을 통해 본 한중문화교류-홍대용의 담헌서와 홍순학의 연행가를 중심으로」, 『모산학보』 2, 모산학술연구소, 1991.
- 김학성, 「가사의 실현화과정과 근대적 지향」, 『근대문학의 형성과정』, 문학과 지성사, 1982.
- 노대환, 「19세기 전반 지식인의 대청 위기인식과 북학론」, 『한국학보』 76, 일지사, 1994.
- _____, 「1860~70년대 전반 조선 지식인의 대외인식과 양무 이해」, 『한국문화』 20,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8.
- 노상오, 「선비정신의 연구」, 『논문집』 31, 부산교육대, 1995.

- 박노춘, 「가사 연행가(병인연행록)」, 『문리학총』 5, 경희대 문리과대학, 1969.
- 박성순, 「조선후기의 대청인식과 북학론의 의미」, 『사학지』 31, 송병기 교수 정년 퇴임기념호, 단국사학회, 1998.
- 소재영, 「을병연행록의 한 연구」, 『송실어문』 1, 송실어문학회, 1984.
- _____, 「홍대용의 을병연행록」, 『국문학논고』, 송실대 출판부, 1989.
- _____. 조규익, 「담헌연행록 연구」, 『동방학지』 63, 국학연구원, 1997.
- _____, 「무오연행록과 연행가의 비교고찰」, 『고전산문의 계보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1.
- 손승철, 「북학의 중화적 세계관 극복」, 『강원대학교 논문집』 15, 강원대학교, 1981.
- 신경숙, 「19세기 연행예술의 유통구조-가곡(시조문학)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43, 민족어문학회, 2001.
- 심금현 외, 「일동장유가 소고」, 『향관어문』 17, 성신여대 국어국문학회, 1988.
- 심재완, 「연행가고」, 『일동장유가·연행가』 한국고전문학전집 10, 보성문화사, 1978.
- 원유한, 「조선후기 대청관계 및 인식의 변화」, 『아세아문화연구』 4, 경원대 아시아 문화연구소 중국 중앙민족대학 한국문화연구소, 2000.
- 원재연, 「17~19세기 실학자의 서양인식 검토」, 『한국사론』 38, 서울대 출판부, 1997.
- 유미림, 「조선 후기의 대중국인식-송명과 반청, 그 이념과 실체」, 『국제정치논총』 41, 한국국제정치학회, 2001.
- 유봉학, 「북학사상의 형성과 그 성격-담헌 홍대용과 연암 박지원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8, 서울대 국사학과, 1882.
- _____, 「18·9세기 노론학계와 山林」, 『한신논문집』 3, 한신대, 1986.
- _____, 「18·9세기 대명 의리론과 대청의식의 추이」, 『한신논문집』 5, 한신대, 1988.
- _____, 「18·19세기 경향학계의 분기와 경화사족」, 『국사관논총』 22, 국사편찬위원회, 1991.
- _____, 「북학사상 연구의 현황과 전망」, 『문학과 사회』 25, 문학과 사회 연구회, 1994.
- 유연석, 「가사문학의 내용적 분류」, 『어학연구』 2, 순천대 어학연구소, 1990.
- _____, 「19세기 가사문학 연구」, 『순천대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10, 순천대, 1991.
- 유혜춘, 「장편 서사가사의 형성배경과 그 본질」, 『한국시가연구』 2, 한국시가학회, 1997.

- 윤광봉, 「사행문학에 나타난 연희양상-병인연행가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논문집』 23, 대전대, 1997.
- 이동영, 「유인목의 북행가」, 『안동문화』 4, 안동문화 연구회, 1974.
- 이동찬, 「사행가사 서행록을 통해 본 문화충격의 실상과 의미」, 『경산문화연구』 5, 경산대 경산문화연구소, 2000.
- _____, 「대청 사행체험의 문화적 충격 양상」, 『한국민족문화』15,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0.
- 이상보, 「장풍에 놀란 물결-원제 서정별곡」, 『문학사상』 33, 문학사상사, 1975.
- _____, 「연행별곡-고전의 발견」, 『시문학』 52, 시문학사, 1975.
- _____, 「작자미상의 연행별곡」, 『한국고전시가연구』 속, 태학사, 1984.
- _____, 「대명복수가 해제」, 『고문연구』 6, 한국고문연구회, 1994.
- 이상수, 「귀암 박권의 서정별곡고」, 『국어국문학 논문집』 9·10,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1975.
- 이원순, 「부경사행의 문화사적 의의」, 『조선 시대사 논집-안(한국)과 밖(세계)의 만남의 역사』, 도서출판 느티나무, 1993.
- 이주영, 「연행가고」, 『한국 고전시가 작품론』 2, 집문당, 1992.
- 이태문, 「조선조 기행가사의 갈래론적 접근-존재양상과 대응태도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3, 동양고전학회, 1994.
- 이태진, 「조선후기 대명여론의 변천」, 『한림대 아시아문화』 10,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4.
- _____, 「18~19세기 서울의 근대적 도시발달 양상」, 『서울학연구』 4,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1995.
- 이혜순, 「조선조 후기 사행역관의 문화적 역할과 문학세계」, 『고전문학연구』 5,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0.
- 임기중, 「사행가사 서행록고」, 『문예중앙』 가을호, 중앙일보사, 1978.
- _____, 「서행록해설 기행문학사의 신기원」, 『문예중앙』 가을호, 중앙일보사, 1978.
- _____, 「연행가사의 연구」, 『한국문학연구』 10,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87.
- _____, 「연행록의 대청의식과 대조선의식」, 『연민학지』 1, 연민학회, 1993.
- _____, 「무자서행록과 병인연행가」, 『한국가사문학연구』, 태학사, 1996.
- _____, 「연행가사와 연행록」, 『가사연구』 국문학연구총서 4, 국어국문학회편, 태학사, 1998.
- _____, 「연행일기」, 『연행록 전집』 75, 동국대 출판부, 2001.
- 임형택, 「18~19세기 예술사의 성격」, 『한국학연구』 7,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1995.
- 장덕순, 「한국기행문학연구」, 『한국학보』 8, 일지사, 1982.

- 정기철, 「기행가사의 개념과 유형분류」, 『한남어문학』 21, 한남대 국어국문학회, 1996.
- 정재호, 「연행가류에 나타난 중국」, 『여행과 체험의 문학-중국편』, 민족문화문고 간행회, 1985.
- 조규익·소재영, 「담헌연행록 연구」, 『동방학지』 63, 국학연구원, 1997.
- 조수익, 「노가재의 중국 체험-그의 연행일기를 중심으로」, 『여행과 체험의 문학-중국편』, 민족문화문고 간행회, 1985.
- 조우각, 「대명복수가」, 『고문연구』 6, 한국고문연구회, 1994.
- 조윤제, 『조선시가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8.
- 川島藤也, 「조선시대 선비에 대한 연구」, 『한국학 연구』 2,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1990.
- 최강현, 「사행가사소고-연행가와 일동장유가를 중심으로」, 『성봉 김성배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형설출판사, 1977.
- _____, 「한국기행문학 소고」, 『월암 박성의 박사 환력기념논총』, 고려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77.
- _____, 「기행가사의 연구사고」, 『홍대논총』 10, 홍익대, 1978.
- _____, 「한국기행문학소고-주로 그 기행 동기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학회, 1980.
- _____, 「한국 기행문학 소고」, 『어문논집』 21, 고려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82.
- _____, 「사행가사를 비교하여 살핌」, 『여행과 체험의 문학-중국편』, 민족문화문고 간행회, 1985.
- _____, 「연행별곡」, 『기행가사 자료선집』, 국학자료원, 1996.
- 최소자, 「조선후기의 대외관계-청국과의 관계」, 『한국사』 32, 국사편찬위원회, 1997.
- 한강부, 「연행가편 고」, 『어문논집』 7, 고려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63.
- 홍재휴, 「창헌 조우각의 대명복수가·천군복위가 고」, 『행정 이상현 선생 회갑기념논문집』, 형설출판사, 1968.
- _____, 「북행가 고」, 『국어교육연구』 2, 효성여대 국어연구회, 1973.
- _____, 「가사문학 연구사·논고」, 『모산학보』 4·5, 모산학술연구소, 1993.
- 황원구, 「연행록선집 해제」, 『민족문화』 2, 민족문화추진회, 1976.
- _____, 「연행록의 세계」, 『여행과 체험의 문학-중국편』, 민족문화문고 간행회, 1985.

A Study on Sadaebu's Consciousness and View toward Foreign
Countries of Hong Soon-hak through <Yeon-haeng-ga>

Kong Hye-Jung

Major in Classic Literatur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old times, Korea used to have a dual diplomatic policy in relations with foreign countries: submitting relations with a strong country and equal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 line with this diplomatic relations, Korea sent envoys, called 'Jo-cheon-sa', to the Ming Dynasty. During the Qing Dynasty, the name was changed to 'Yeon-haeng-sa'. These ambassadors were sent to China or Japan under the direction of the government; after they came back to Korea, they wrote reports on their diplomatic mission to submit them to the government or wrote their experience or feelings in a form of literary work for other people.

The Chinese records of these travel journals in a literary form were called 'Yeon-haeng-rok.' The tradition of 'Yeon-haeng-rok' was kept on from the 『No-ga-jae-yeon-haeng-il-ki』 by Kim Chang-up, the 『Dam-hyun-yeon-ki』 by Hong Dae-yong, the 『Yip-yeon-ki』 by Lee Duk-moo, the 『Yeol-ha-il-ki』 by Park Ji-won, the 『Nan-yang-rok』 and the 『Yeon-dae-jae-yu-rok』 by Yu Duk-gong, the 『Yeon-haeng-ki』 by Seo Ho-soo, and 『Yeon-won-jik-ji』 by Kim Kyung-seon. A travel journey written in the form of lyrics of song is called 'Yeon-haeng-ga-sa'. Among

the 'Yeon-haeng-ga-sa', which is known to the present time, there are the <Yeon-haeng-byul-gok>, the <Seo-jung-byul-gok>, the <Seo-haeng-rok>, the <Yun-haeng-ga>, and the <Buk-haeng-ga>. These 'Yeon-haeng-rok' or travel lyrics who were used as excellent guidebooks for people who travel.

In 1866, Hong was sent to Qing as both a temporary envoy and an official, and he came back to Korea and wrote the <Yeon-haeng-ga> in the form of lyrics, telling his experience and feelings during his long journey.

This paper will examine Sadaebu's Consciousness and View toward Foreign Countries of Hong through <Yeon-haeng-ga>.

First, under the title of "Self-awareness and inner expression as a nobleman", this paper will look at Sadaebu's Consciousness of Hong. As an envoy and a literary man, he was a very proud man. At first, he was a little puzzled by a reception and a 'ki-saeng' given to envoys, but he was assimilated into the culture. From the first half of his writing, we can tell his pride as a special envoy to the strong country, China. His theses regarding filial respect toward parents, concern of wife remind readers of filial spirit of a Confucian scholar, Juja's philosophy.

Next, let's look at the writer's view of history and View toward Foreign Countries. Hong expressed his loyalty to his country as he reflected on the history of relics during his journey. His diplomatic view was in line with this historic awareness. In the latter half of the 19th century, it was a modernized time, but he was still immersed in the diplomatic view of worshipping the Ming Dynasty and rejecting the Qing Dynasty, described in his <Yeon-haeng-ga>. His View toward Foreign Countries coincided with that of the noblemen or the populace at that time, except some radical politicians. In relation with this view, he had extremely negative view toward the West. Even if political situations were changing rapidly

everyday, due to the deep-seated Sino-centrism, people's perception of the Qing or the West as barbarian countries did not change much.

Perception of worshipping the Ming Dynasty and rejecting the Qing described in the <Yeon-haeng-ga> was shared by most people at that time, and it was a general perception. Around the latter half of the 19th century, this perception changed a lot, but it was limited to some noblemen in political or ideological circles. Outside the political arena, this view was still prevalent among the envoys and the general public. Hong also still kept this idea and even expressed it in his journey, <Yeon-haeng-ga>.

<Yeon-haeng-ga> is a literary work at the meeting point of the two traditions of 'Yeon-haeng-rok' and writing lyrics, coupled with the tradition of Hong family at Namyang area. But, according to the contents, it uses the motifs of Pre-Yeon-heang-record. The common expressions used in the precious travel lyrics can be considered as plagiarism. This trend is typical lyrical literature of the Chosen Dynasty.

In conclusion, <Yeon-haen-ga> includes the general ideas of the noble class and the general public ideologically, whereas it borrows motifs of the previous 'Yeon-haeng-rok' in terms of the contents, by literally citing common expressions used in travel lyrics. This shows the last stage of customary lyrical literature of the Chosen Dynasty.